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I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압박

네타냐후 “가자지구에 군 투입할 것”
하마스 지휘부 암살작전도 시작



피란가는 가자지구 주민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지구에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전면전을 향해 달려가는 양상이다.

네타냐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은 없다”며 중동 전역에서의 보복전을 예고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하마스의 기습공격 나흘째인 10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지상군 투입을 서두르고 있다. IDF는 이날 “가자지구 경계에 35개 대대가 배치됐고, 향후 작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인 대피가 완료됐으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집트가 통제하는 길을 통해 떠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추가 6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다. 시민들에게 방공호에서 약 3일간 머물라고 권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밤 TV 연설에서 “하마스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IS)”라며 “우리는 현대 세계가 ISIS를 이긴 것처럼 하마스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 매체 약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하마스를 처단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에게 “지금 협상할 수 없다”며 “중동에서 약점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지상군을 투입하지 말라고 설득하지 않았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박소영·강태화·이유정 기자 >> 13면 '이스라엘' 로 이어집니다

선관위 가상해킹에 뚫렸다 국정원 “명부·개표 조작 가능”

선관위 시스템 합동 보안점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상태라고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일 밝혔다.

지난 7~9월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보안점검 결과에서다.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허점은 상당 부분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내부 중요망(업무망·선거망)의 망 분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가상의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의 업무망·선거망으로 어렵지 않게 침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개표 시스템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가상 해커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를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廳印)’과 ‘투표소 사인(私印)’을 탈취하는 데도 성공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에 접근해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짜퉁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개표 시스템의 경우 안전한 내부망(선거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역시 침투가 가능했다. 국정원은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변경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개표 결과의 조작을 막기 위해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 연결이 가능했다.

정영교·문화철 기자 >> 2면 '선관위' 로 이어집니다

알림

한인 경제생활 현주소를 묻습니다



최대 한인은행뱅크 오브 호프 협찬
안마 의자, 항공권 등 2만불 선물



미주중앙일보 창간 49주년, 워싱턴 중앙일보 창간 22주년을 맞아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 ‘전국 한인 경제생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한인들의 경제생활 현주소 파악을 위해 재정 상황, 주거 및 투자 형태, 노후대책, 은행 이용 실태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항들로 구성됐다는 특징이다.

특히 전국 단위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한인 경제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라는 의미도 크다. 또한 앤데믹과 고물가 등이 한인 경제에 끼친 영향도 알아볼 예정이

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주소 기재는 없애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설문조사는 중앙일보 웹사이트인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10월 25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 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설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주첨을 통해 총 2만 달러의 상품을 제공한다.



강서구청장 오늘 보선, 누가 웃을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왼쪽 사진)·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10일(한국시간) 서울 강서구 지역을 돌며 막바지 총력 유세를 하고 있다. 이번 보궐 선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내 13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질
순금 예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원장 정요한 Dr. John Chong

전공 / 경력

-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 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571-210-5535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yes.com/korea



미국 국채금리 쇼크에 중동 불안... Fed, 긴축 고삐 늦추나

“금리 인상 신중해야” 잇따라 언급 비둘기파적 신호에 뉴욕증시 상승 유가 뛰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코스닥은 7개월만에 800선 깨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준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립 제퍼슨 Fed 부의장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금융 여건의 긴축 상황을 인식하고 또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평가하는 데 이런 상황을 염두

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장기 국채금리가 5%선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그리는 만큼 기준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을 높여 기준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FOMC 이후 0.4%포인트 상승해 4.8%선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이날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최근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최근 채권시장의 긴축이 금리 인상 1회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NP파리바의 엘레나 솔리에 체바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일부 매과를 포함한 대다수 Fed 인사들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Fed 참여자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Fed와 시장이 국채금리 추이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인 전쟁은 새로운 변수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물가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긴축 강화에 이어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많은 한국 경제에는 먹구름이 몰

려울 수밖에 없다. 당장 중동 불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자 10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6.15(0.26%) 내려 2402.58에 마감했다. Fed 인사들의 발언 영향 등으로 장 초반 1% 넘게 상승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21.39포인트(2.62%) 떨어져 79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 밑으로 내려온 건 7개월여 만이다.

Fed가 금리 인상의 고삐를 늦춘다고 해도 고금리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무보증·신용등급 AAA) 금리는 지난 4일 연 4.795%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도 연 4.6~4.7%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

고정금리 상품의 지표 역할을 하는 이 금리는 지난 5월에 연 3%대 수준이었는데 6월 이후 연 4%를 넘기며 상승 추세를 그렸다. 이달 들어선 Fed의 매과(통화 긴축 신호) 신호 시그널에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한때 연 4.8%를 넘긴 영향으로 국내 금리의 상승 곡선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할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을 막론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빚 관리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효정·하남현 기자

▶ 1면 '선관위'에서 이어집니다

짜통 사전투표용지 만들 수도 있어 일부 시스템 접속비번 12345 부실

가상 해커는 이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었다.

A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B후보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각종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투표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업무망의 주요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일부 비밀번호도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 조합으로 설정돼 있어 쉽게 뚫렸다.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치는 출고할 때 설정돼 있던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선 선관위의 인터넷용 PC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에 의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자료가 유출된 것 외에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과거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원과 기간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오른쪽)이 10일 국가 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국정원]

의 제약으로 선관위 전체 장비의 약 5%에 불과한 317대만을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해킹 가능성 부각, 선거 불복 주장”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안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보안 취약한 선관위 시스템

※선관위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 합동 7월 17일-9월 22일 합동 보안점검 실시

투표 시스템 내부망 침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인명부시스템 사전투표자 바뀌치기 및 유령 유권자 등록할 수 있음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직인 절취 및 사전투표용지 인쇄 가능 확인 사전투표소 내부 선거망에 외부 비인가 PC 연결할 수 있음 일부 위탁선거에서 해커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 불가
개표 시스템 해커가 결과 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내부망과 접속 패스워드 보안관리 미흡으로 개표결과값 변경할 수 있음 투표지분류기 비인가 USB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 변경할 수 있음
전체 시스템 관리 총체적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과 선거망 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저장

제출받은 '52개 중앙부처 해킹 시도 차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해킹 실패 사례는 11만2413건이었다.

부처별로 따지면 평균 2161건가량이 다. 그런데 중안선관위가 제출한 지난해 사이버 공격 건수는 3만9896건이었다.

특히 해킹 시도는 선거가 있는 해에 급증했다. 21대 총선이 열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해킹 시도가 25.7% 늘었고,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25.1% 증가

했다.

국정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백종욱 3차장은 이날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며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공동 브리핑에 참

여하지 않은 선관위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각종 정보 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어 실물 투표를 통해 언제든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고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를 바꿔치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안 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및 DB 위·변조 여부 탐지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영교·문희철 기자

워싱턴 날씨 (°F)

12일(목)	75~51	☀️	15일(일)	60~49	☁️
13일(금)	73~57	☀️	16일(월)	60~47	☁️
14일(토)	69~53	☁️	17일(화)	59~45	☁️

10월11일(수) 71~4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RE/MAX EXECUTIVES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RENT \$2,850/m 방3, 화장실2,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새 부엌, Under Contrac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터일!
--	---	--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무료 상담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만나왔습니다

5선 도전나서는 팻 헤리티 스프링필드 슈퍼바이저

월 7.99달러 새 플랜 출시



미주 최초·최대 한국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OTT)인 온디맨드코리아(대표 차영준)가 지난 5일 기존 프리미엄 플랜 대비 40% 이상 저렴한 라이트 광고형 요금제 '스탠다드' 플랜을 월 7.99달러에 출시했다.

온디맨드코리아는 최근 다변화된 고객의 수요에 발맞춰 요금제를 다양화하기로 결정하고 4대 기기까지 동시 시청이 가능한 '패밀리 플랜' 및 일부 콘텐츠에만 광고를 삽입하고 가격을 대폭 낮춘 스탠다드 플랜을 추가로 출시했다.

특히 스탠다드 플랜 요금제는 실제 고객이 체감하는 광고 분량은 평균 시간당 4~5분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면서도 요금은 기존보다 40% 이상 저렴하다.

개편된 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디맨드코리아 웹사이트(ondemandkore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페어팩스의 정치적 밸런스 유지도 나의 사명”

오는 11월 중합선거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스프링필드 지구 슈퍼바이저로 재도전하는 팻 헤리티 현역 슈퍼바이저가 헤럴드 변 법무부 선임 보좌관과 함께 본보를 찾았다. (사진)

16년째 스프링필드 지구 슈퍼바이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공화당적 을 가진 유일한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에 스스로를 “페어팩스 카운티의 정치적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힌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슈퍼바이저, 교육 위원 등 기초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당적 색채

를 빼고, 온전히 정책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정당의 색깔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북버지니아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망치고 있다”면서 범죄 증가, 노숙자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스프링필드 지역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팬헨들링 금지 법안’ 등을 입안했고, 경찰력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인 인구가 10만에 가까운 북버지니아. 그러나 그가 속한 스프링필드 지구에는 한인 가구가 500여 세대에 불과하다. 그래도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한결같이 ‘친



한파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다.

버지니아 지역 한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는 미주한인재단,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등 각종 한인 기관 및 단체에서 각종 ‘봉사상’과 ‘감사패’를 수상해왔다.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한인들을 사랑하고, 한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에 앞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

라며 “아시아 증오 범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정책을 조율할 것이며, 한인 중소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각종 규제 간소화 및 지원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들이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교육 향상을 위해 교사 확충 등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그동안 자신의 업적으로 “6억달러 교통예산 유지, 경찰예산 증액, 10% 식품세 저지, 워싱턴 가제트지 선정 7년연속 최우수 공무원 선정” 등을 꼽았다.

끝으로 헤리티 슈퍼바이저는 “요즘은 ‘선거일’이 아닌 ‘선거시즌’이라고 불릴 만큼, 수개월간 진행되는 조기투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다시한번 나를 선택해 페어팩스 지역의 정치적 밸런스 유지에 이바지해달라”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박세용 기자



VA 공무원 연봉총액 ‘82억달러’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주정부 자료에 의하면, 로널드 슈미츠 버지니아 은퇴연금(VRS)의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작년 한해 모두 101만4140달러(기본급 49만3108달러, 성과급 52만1032달러)를 받아 최고 연봉 수령자로 꼽혔다.

VRS는 버지니아 공무원의 은퇴연금 적립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공공투자회사로, 다수의 고연봉자를 배출하고 있다. VRS는 투자전문가인 IPPP를 통해 투자 성과에 따라 고액의 성과급을 배당한다.

2위는 조지 메이슨 대학의 킵 잉글리시 농구 코치(92만5천달러), 3위는 버지니아 텍의 브래들리 밥콕 체육총감독(89만5403달러), 4위는 버지니아 대학(UVA) 총장 제임스 라이언(85만1681달러), 5위는 제임스 보웬 버지니

아텍 풋볼팀 쿼터백 코치(83만6330달러) 등이었다.

2022년 버지니아 공무원의 임금 총액은 82억달러였다. 버지니아대학(UVA)가 8200명에 대해 7억8800만달러, 버지니아 텍이 7600명에 대해 6억4900만달러, 버지니아 커먼웰스 헬스가 6700명에 대해 5억7600만달러,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이 6700명에 대해 5억7600만달러, 버지니아 교통부가 7500명에 대해 5억4900만달러, 조지 메이슨 대학이 4800명에 대해 4억4700만달러, 제임스 메디슨 대학이 3100명에 대해 2억2100만달러, 버지니아 주립경찰국이 3천명에 대해 1억9800만달러, 올드 도미니언 대학이 2400명에 대해 1억9600만달러를 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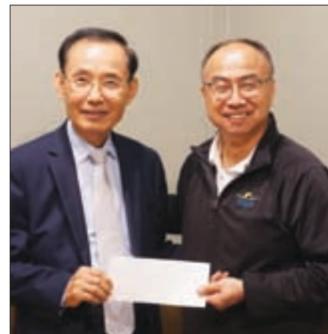
버지니아 주정부 공무원은 모두 11만1704명으로, 이들 중간 연봉은 6만2038달러였다. 김옥채 기자

“KCBMC, 빛과 소금되는 단체되길...” 리앤리재단 3천달러 후원기금 전달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 리앤리 재단(Lee & Lee Foundation 이사장 이세희·사진 왼쪽)이 지난 10일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소재 니코식당에서 KCBMC동부연합회(회장 안일송·오른쪽)에 후원기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이세희 이사장은 “일터에서의 신앙인 삶을 변화시키는 모범적 단체 KCBMC동부연합회의 좋은 계획에 적은 금액이지만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기금을 전달 받은 안일송 회장은 “CBMC의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밝히며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우리는 일터로 보낸받은 선교사로서 전도와 양육의 미션을 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 회장에 따르면 CBMC는 전문인과 실업인을 전도하고 양육해 영적 재생산자로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성경적 개발을 경영해 비즈니스 리더 배출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성경적 경영을 전문성 있는 일터

에 적용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전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함께 리앤리재단은 11월 미주 세종장학재단, 12월 하워드카운티한인시니어센터에 후원 기금 전달을 마지막으로 2023년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수혜기관 공모 신청 기간에 지원을 받아 재정보고 및 사업계획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후원할 예정이다.

한편, 리앤리 재단은 지난 여름 한국 외국어대학 미주동문회가 운영하는 HUFS 파운데이션 오브 사우던 캘리포니아를 통해 박정은 총장에게 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며 선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4년 후원기금으로 14만달러를 책정, 한인사회에 5만달러 후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추수감사절 항공 예약 지금이 적기”

올해 할러데이 시즌 최저가 항공 티켓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 초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할러데이 시즌 여행객의 86%가 1-2번 비행을 탈 계획으로 이번 연휴 시즌 항공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행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카약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크 부브리는 “항공 수요가 많은 가운데 최저 가격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 약 2개월 전 예약해야 한다”며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권 예매는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그는 “약 50일 전에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면 가장 좋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며 “크리스마스 연휴 경우 오는 14일 이전 예약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여행전문가들은 할러데이 시즌 항공료를 낮추는 최고 비결로 여행 날짜를 유연하게 정하는 것을 꼽았다.

하피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요일인 11월 20일로 항공 요금을 최대

13% 절약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12월 18일 혹은 19일에 도착하거나 크리스마스가이브나 당일 항공편을 이용하면 요금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항공권이 가장 비싼 날은 연휴가 끝나는 11월 26일로 다음 날보다 40%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공항이 가장 빠르고 항공권도 최고 비싼 날짜는 12월 22일이다.

카약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 정점을 찍었던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올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항공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14% 내렸고 렌터카 비용도 17%나 감소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항공료가 전년 대비 12% 인하했다.

한편 카약이 조사한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연휴 가장 바쁜 공항은 LA 국제공항(LAX)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 보스턴로건국제공항(BOS), 시카고오허국제공항(ORD) 등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 항공권 예매는 10월 초, 준승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LA국제공항 아메리칸항공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 박낙희 기자

카드 빚 평균 6000달러 초과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초 1조 달러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평균 카드빚이 6000달러를 넘었다.

폭스비즈니스는 크레딧점수 평가 기관 밴디지스코어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평균 크레딧카드 빚이 6082달러를 기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신용조사기관인 트랜스유니온이 분석한 2분기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 6000달러에서 더 증가한 수치다.

2분기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0.24%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6000달러를 연체하면서 매월 최소 금액만 낼 경우 부채를 갚는데 18년이 걸리고, 이자로 거의 95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고뱅크레이트는 분석했다.

2분기에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크

레딧카드를 사용했는데 10년 전의 59%보다 증가했다. 또 이들의 2분기 크레딧카드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늘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 때의 저축액이 3분기 말에 고갈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빚을 갚는데 더욱 어려워지며 카드빚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자산관리 회사 퀵크이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35%가 올해 말 이전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5%는 연말이 오기 전 적어도 한 개 이상 크레딧카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은영 기자

자동차 보험료 1년새 17% 올랐다

자동차 보험료가 1년 새 무려 17%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업체 익스피리언이 최근 연방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자동차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16.9%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인 3.0%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이같은 보험료 상승은 자동차 관련 비용이 전년 대비 대체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은 작년 대비 4.1%, 자동차 리스는 11.6% 증가했다. 자동차 수리 비용은 가장 큰 상승 폭인 19.8%를 기록했다.

수리비 증가는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도 직결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격이 급등한 것이 보험사들의 손실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및 교체 부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손해 복구 비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다수의 제조사가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을 보유한 첨단 부품을 모델 라인업에 탑재하면서 이전 대비 수리가 복잡해지고 교체 비용이 뛰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기차 상용화도 여기에 일조한다. 전기차는 센서 등 충격에 취약한 부품이 개솔린 차보다 내부에 더 많아서 사고 시 수리비 견적이 비싸게 나올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이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상관없이 전기차를 아예 전손(total loss)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손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렌트카 비용과 최근 증가한 사고 건수 및 심각성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전손 처리 비



자동차 보험료가 1년 사이 약 17%가 뛰면서 보험료 절약 방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LA한인타운 월셔블라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의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

율은 1년 새 24%에서 27%로 3%포인트 올랐다.

진철희 캄코보험 대표는 “물가 상승과 사고로 인한 클레임 비용 증가로 보험사들의 손실이 큰 상태”라며 “이들은 수익 구조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선불리 보험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보험 상품 쇼핑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을 해지한 후 만족할 만한 상품을 찾지 못해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이전 대비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의 자동차 보험 비용은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주별 자동차 보험료 가격 순위를 매겼을 때 가주는 10위에 올랐다.

구동형 자동차 렌트업체 핀(FINN)의 조사에 따르면 가주의 차 보험 가격은 연간 평균 2453달러로 추산됐다.

1위인 플로리다의 4813달러의 절반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오하이오의 941달러보다 161% 비쌌다.

전국 평균인 연 1870달러와 비교했

을 땀 가주의 운전자들은 매년 583달러(31%)가량 더 내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공유했다.

익스피리언은 일부 보험사에선 차량에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 주행 습관을 기록하고 안전한 주행을 보고되면 보험료가 내리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충돌 대비 방어적 운전법 등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등록 및 이수하면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상품들도 있다.

프로그램 시 보험의 경우 두 가지 보험료 절약 방법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울스테이트 보험에서도 운전 교육을 통한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유명 보험사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경쟁력 있는 커버리지와 가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결정하기 전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훈식 기자

아마존 판매 에어프라이어 리콜

사용 중 과열로 화재 위험이 보고된 에어프라이어 리콜됐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달 28일 내부 배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시큐라의 에어프라이어(사진) 6400대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보고된 발화 관련 문제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 또는 재물 손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문제의 에어프라이어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업체 웹

사이트와 아마존에서 제품에 따라 48~90달러에 판매됐다.

리콜 대상은 제품 하단에 제조일 코드 1901과 함께 제품 모델 번호로 SAF-53D(TXG-DR16E) 또는 1903, 1904와 모델 번호 SAF-53 (TXG-DS16)가 각인돼 있다.

CPSC는 해당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에 문의해서 구매처에 따라 아마존 기프트카드 45달러 혹은 무료 교환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교환 또는 기프트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연락처 정보와 함께 리콜 대상인 에어프라이어

의 모델 번호와 전원 코드를 절단한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큐라는 연락이 닿는 구매자에게 직접 리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콜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업체의 전용 웹사이트(thesecura.com/recall)를 방문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덜레스 톨로드 요금 21% 인상 추진 논란

덜레스 그린웨이 톨로드 요금 인상안이 제시돼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덜레스 그린웨이 톨로드 운영회사 TRIP II가 제시한 인상안에 따르면 2개축 일반 차량의 경우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5.25달러(러시아워 6.40달러)에서 5.80달러(러시아워 8.10달러)로 최소 21% 올라간다.

덜레스 그린웨이 톨로드는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 리스버스에서 덜레스 공항까지 14마일 구간에 설치된 민간 톨로드다. 이 톨로드가 처음 개통된 1995년에는 일반 차량 1.75달러, 나머지

차량 3.50달러였다. 이 톨로드는 개통 당시 높은 요금 탓에 이용차량이 많지 않았으며 라우든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서부지역의 인구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에도 다른 대체 루트가 꾸준히 개발돼 예상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TRIP II는 지난 2021년에도 요금인상안을 버지니아기업위원회(SCC)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SCC와 정치권, 그리고 톨로드 운영회사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SCC가 주법에 의해 톨로드 요



금 인상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승사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와중에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요금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불가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라우든 페어팩스, 퍼쿼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TRIP II의 로비를 받고 있는 상당수 의원들은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민간 톨로드 운영사를 압박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차기 주지사 선거를 위해 인기영합성 발언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알리지 시즌 2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로 두달 이상 길어져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지만, 아직도 알리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알리지 시즌이 더 일찍 시작되고 더 늦게 끝나는 현상 탓에 겨울 초입까지 알리지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에서 알리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헨리 피셔맨 박사는 “워싱턴 지역에서 알리지를 유발하는 꽃가루 방출 시기는 보통 3-4월에 시작돼 10월 초순이면 끝났지만, 요즘에는 2월에 시작해 11월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 경험은 물론 학술적으로도 최근 20년 사이 알리지 환자가 두 배나 늘어났다”면서 “알리지 시즌이 길어지면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알리지 시즌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출되는 꽃가루 양도 크게 늘어났다.

연방음식및알리지연구소에 따르면, 꽃가루 방출량이 1990년대 비 21% 증가했다.

가을철 발생하는 꽃가루 알리지는 주로 코막힘, 후비부 콧물, 가려움증, 눈물 등의 증상에 이어 천식을 유발한다.

이로인해 수면장애와 집중력 장애 현상을 불러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셔맨 박사는 봄보다 오히려 가을철 알리지가 더욱 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돼지풀(ragweed)과 각종 잡초의 꽃가루 방출시기가 9월 이후 집중되기 때문이다.

메트로 블루라인 연장 계획 탄력

블루라인 스프링필드에서 관티코 해변대 기지까지

워싱턴 메트로 전철 블루라인을 확장할 경우 북버지니아 남동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2021년 타당성 검사를 위한 예산 200만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주정부는 페어팩스 카운티 프랭코니아-스프링필드 메트로역을 끝나는 메트로 블루라인 전철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관티코의 해변대사령부까지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용역사업을 진행했다. 두 지점 사이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로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포트맥 밀즈 등에 메트로역을 건설하는데, 현실화될 경우 워싱턴 메트로 지역 서부 발전축이 남부 발전축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교통부는 이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을 해소할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메트로 전철을 꼽고 있다.

스콧 서로벨 상원의원(민주, 36지구) 등은 “이 지역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I-95 도로의 부분적인 확장이나 버스 증설 등의 미봉책보다는 메트로전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메트로 전철 1마일당 건설비로 최대 8억달러, 메트로전철역 하나당 건설비로 최대 2700만달러를 예상했다.

워싱턴 메트로(WMATA)는 워싱턴 지역에 모두 118마일의 메트로 전철레일망과 91개 메트로역(D,C,40개, 메릴

랜드 26개, 버지니아 25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예산이 모두 36억달러에 이른다.

메트로당국은 이미 2012년 마련한 ‘메트로 2013-2025년 장기전략계획서’를 통해 블루라인 확장 계획을 포함시켜 놓았다. 전문가들은 실제 공사가 향후 10-15년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7억달러를 투입해 버지니아통근열차(VRE)와 철로 현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메트로 블루라인 연장과 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지원이 뒤따른다면 착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정부는 메트로 전철 외에도 인터스테이트 95번과 1번 국도를 따라 버스전용차선(BRT) 건설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게 된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지역 전기차 구매 급증

최근들어 전기차를 구매하는 워싱턴 지역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체 등록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최근 12개월래 등록차량으로 한정할 경우 15%에 달한다.

메릴랜드는 내연기관 세단과 미니

밴, SUV, 픽업 트럭 등의 판매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 2035년부터는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으로, 웨스 무어 주지사가 최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메릴랜드는 캘리포니아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가동한 셈이다.

메릴랜드 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3년 전기차 등록율은 742%나 증가했다. 현재 메릴랜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8만1천대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30만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메릴랜드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1400곳(충전포트 4000개)에 불과해 전기차 구매 수요에 맞춰 충전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

볼티모어 시티 등 도심지역은 공공 충전소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몽고메리 카운티와 하워드 카운티 등 근교지역은 신규 주택 25채당 최소 한 곳의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주택가 충전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현재 400곳 수준인 충전소를 2045년까지 26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와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혜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D-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초울) 웨일리노레방 뉴타운
300m 뉴타운
미락초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바이든, 기밀문건 유출 의혹에 자발적 특검 신문 받아

사저 등서 발견된 기밀문건 관련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지난 9일 밝혔다.

로이터·AP 통신은 백악관 법률고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8~9일 이틀간 자발적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처음부터 말했듯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이상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법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의 기밀문서가 작년 11월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들이 워싱턴DC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통령 시절 작성된 기밀문서를 발견했으며 이후 12일과 14일에도 ‘기밀’ 표시가 된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의 벨라 웨어 월빙턴 사저 등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수사 당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은 물론 상원의원이었을 시절의 기밀문건 반출 여부도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건이 발견된 직후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신문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외신

들은 해석했다. AP는 특검 측이 지난 8월 25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로버트 허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목격자를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왔다.

한편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세계 반도체 8월 매출, 전월보다 1.9% ↑ … 6개월 연속 증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8월 한 달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440억 달러(약 59조2천억 원)로 전월 대비 1.9% 늘어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3월과 4월은 각각 전월 대비 0.3%, 5월과 6월은 각각 1.7%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는 2.3%가 늘었다.



다는 6.8% 감소했다. 존 뉴퍼 SIA 회장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해 중반 들어 수요가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매출은 지난해 동월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폭이

작은 것이어서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미주(4.6%), 중국(2.0%), 아시아 태평양/기타(1.2%)에서 전월 대비 매출이 늘었지만, 일본(-0.4%)과 유럽(-1.1%)은 감소했다.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서는 유럽(3.5%), 미주(0.3%)는 증가했지만 일본(-2.9%), 중국(-12.6%)은 줄었다. SIA는 이 같은 반도체 월간 매출은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집계한 것이라고 전했다.



카탈린 커리코 안 릴리에 나르게스 모하마디 클로디아 골딘

여성 수상자 넷, 노벨상 올해는 달랐다

여성노동·인권운동 공로 인정도

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남녀 고용 불평등과 임금 차별을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 9일 자에 따르면, 골딘 교수는 수상자 발표 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오해가 있지만, 경제학은 사람에게 관한 것이자 불평등을 연구하고 여성 노동력을 다루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는데, 관련 질문에 “한국의 출산율은 0.86(2021년 기준)”이라고 정확히 언급하며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남성과 한국 기업문화는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노벨상은 백인 남성 등 사회 주류에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화상과 문학상을 빼면 여성 수상자 비율이 5%에도 못미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측은 2021년 “성별 및 인종 할당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수상자 후보 선정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골딘 교수의 연구 성과가 특히 주목된다. 그는 200년

워싱턴포스트(WP) 9일 자에 따르면, 골딘 교수는 수상자 발표 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오해가 있지만, 경제학은 사람에게 관한 것이자 불평등을 연구하고 여성 노동력을 다루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도 언급했는데, 관련 질문에 “한국의 출산율은 0.86(2021년 기준)”이라고 정확히 언급하며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남성과 한국 기업문화는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노벨상은 백인 남성 등 사회 주류에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평화상과 문학상을 빼면 여성 수상자 비율이 5%에도 못미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측은 2021년 “성별 및 인종 할당제는 검토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수상자 후보 선정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수진 기자

상원대표 “시진핑에 공정 경쟁 촉구…민주주의 원칙 확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면담에서 호혜적인 안정과 공정성을 분명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에서 “미중 관계의 근간에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과 책임감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호혜주의를 원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시 주석과 면담이 생산적이고 진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면담은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중국을 추격하는 최대 도전으로 상정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은



추구하되 관계단절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

최근 몇 달 사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리몬도 상무장관 등이 잇달아 중국을 찾아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방중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난 이외에는 중국을 찾은 미국 고위 인사와 접촉을 자제해 온 만큼, 이번 대좌를 놓고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징표라는

해석이 나왔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의원단은 면담에서 미국은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지만, 역내 안정과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진지한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우리는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시 주석과 면담 직후인 전날에도 별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한층 적극적인 규탄 및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차·포’ 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불가피한 선택인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글로벌 항공운송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붕괴위기에 처했다. 국적 항공사 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게 최선이다.”(이동걸 당시 산업은행장)

2020년 11월 16일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발표된 이후 나온 주요 언급들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9월 HDC현대산업개발로의 인수가 무산된 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 아래에 들어갔다. 당시 합병 소식에 “세계 7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출범한다”는 장밋빛 전망도 이어졌다. 양사의 국제여객 수송수와 화물운송량 등을 더한 순위였다.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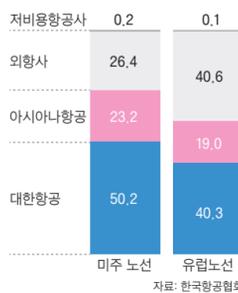
EU·미국·일본 승인 절차 남아

그러나 합병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에 미국·EU(유럽연합)·중국·일본·영국 등 14개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형 항공사 간 합병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필수승인 국가 중 한 곳만 불허해도 합병은 무산된다. 현재는 EU와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의 승인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런던 히스로공항의 주 7회 ‘슬롯’(Slot,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권리)을 영국

항공 화물 지역별 점유율

단위: % ※2022년 기준



항공사인 버진에 틀랜틱에 넘기기로 했다. 주요 공항의 슬롯은 항공사의 귀한 자산으로 히스로공항은 특히 슬롯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에는 히스로공항의 출발·도착 슬롯 2개가 1000억원에 팔리

기도 했다.

또 중국에선 46개의 슬롯을 반납키로 하는 등 적지 않은 출혈이 생긴 탓에 합병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샀다. 여기에 최근 대형 약재가 터져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요구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분을 매각하고, 유럽 4개 노선(프랑크푸르트·바르셀로나·로마·파리)도 반납할 거란 소식이다. 이달 말께 대한항공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병시정서를 제출하면 연말쯤 EC의 결정이 날것이란 예상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부문은 지난해 매출이 3조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5조63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차·포 다 뺄 거면 뭐하러 합병을 하느냐” “껍데기만 남기고 합병할 거냐” 등의 비평이 나온다.

“중장기 경쟁력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산업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화물부문 매각과 노선·슬롯 반납 등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되겠지만, 합병이 성사되면

양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공 화물 분야는 코로나19로 잠시 호황이었을 뿐 대체로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이기광 대한항공 전무는 “법적으로 국내 항공사나 기업에 넘겨야 하므로 국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합병이 무산되고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문을 닫게 되면 대규모 실직 사태도 큰 문제지만 그동안 구축해놓은 글로벌 항공네트워크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파산 때와 유사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대한항공사는 자국의 허브공항에서 최소 50% 이상 슬롯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합쳐도 채 40%가 안 된다”며 “이 상태로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떨어져 생존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산업은행도 “합병 작업은 계속 진행돼야 하며 (제삼자 매각 같은) ‘플랜B’는 없다”는 입장이다. 1800%에 육박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과 막대한 금

융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제3의 인수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합병 방향을 두고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까지 매각하면 합병을 통한 시너지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며 “EU에 양보하면 남은 미국, 일본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와 관계 당국 머리 맞대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합병과 대한항공의 독점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고려 없이 자기 부담만 덜어내려고 불합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에선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산업은행이 8000억원(지분율 10.58%)을 투자한 걸 고려해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만 염두에 두고 합병에 몰두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한다. 물론 대한항공은 “합병 추진은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은 “지금 상황이라면 합병의 시너지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합병 외의 다른 방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단순하게 시너지 효과가 없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양보로 인한 손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네트워크 재구축과 수익을 증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합병 과정은 쉽사리 한쪽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만 모든 걸 맡기고, 책임도 떠넘기는 모양새는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시급히 모여 합병 취지와 진행 과정, 전망 등을 엄밀히 따져보고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때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한국도 어지럽지만 미국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난 3일 공화당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당내 8인의 반란표(‘게이츠8’)로 의장직에서 쫓겨난 뒤 출당, 의원직 제명 요구 등 정치 보복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 주류파 의원들과 뉴트 깡그리치 전 하원의장 같은 원로까지 가세한 정치 보복의 표적은 단연 매카시 해임결의안(Motion to vacate)을 발의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규모 공격을 받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미 의회를 마비시키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다는 건 점잖은 축에 드는 비판이다. 미 법무부가 2년여 수사

후 증거 신빙성 문제로 기소를 접은 게이츠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끄집어내 인신공격 수준의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한국 상황과 똑같지 않은가.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용천 등 더불어민주당 5명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해당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강성 지지자 5만 7000여 명의 징계 청원에 따라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가결 오적’ 과 미국의 ‘게이츠 8’



한국 민주당의 ‘가결 오적’ 포스터처럼 미 공화당에도는 ‘게이츠 8’ 사진. [X(트위터) 캡처]

게이츠 의원은 8일 NBC방송에 나와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매카시 전 의

장을 해임한 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매카시가 연방부채 상환을 올리는 상임위 법안 심사를 안 거치고 바이든 행정부와 ‘임시 예산안’으로 타협한 데 대해 통상 의회 절차(Regular Order)를 회복하려 했다는 명분이다. 비명계 의원들이 비민주적인 보복 위협 앞에서 “국회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적힌 헌법 46조를 따랐다고 하는 항변과 비슷하다. 민주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다수당 대표 격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일

자체가 234년 의회사상 처음이다. 한국에서 제10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기사 희생한 것도 사실 초유의 일이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문제의 진원이 되길 거듭하면 국민은 정치 참여로 무언가 바랄 수 있다는 기대(정치 효능감)를 점점 잃는다. 실망한 유권자는 기존 정당체계(양당) 밖 새로운 인물이나 세력에 눈을 돌리게 된다. 미국에선 2016년 트럼프 당선과 2020년 낙선 직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점령에 이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부활로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에선 내년 4·10 총선을 시작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벌써 궁금하다. 정효식 정치에디터

MD, VA & DC 턱관절 치료 위한 병원

턱관절 질환 치료하고 통증을 잡으세요.
턱관절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치료가 이루어 집니다.

1. 진단과 X-Ray 분석
2. 턱관절 물리 치료
3. 교정치료 (Chiropractic Adjustment)
4. 주사 및 약물 치료 (Board Certified NP)
5. 장치 치료



Min Chiropractic & Rehabilitation
2000A Veirs Mill Rd., Unit A, Rockville, MD 20851

minchiro.com

301.279.6960

심훈·임화, 종로를 조선의 심장·청년 아지트로 칭송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에 대한 흥미로운 설문 조사가 있었다. 『국경의 밤』을 쓴 시인 김동환은 상실된 국토의 상징성을 제목으로 삼아 1929년 6월, 종로구 3가 돈의동 74번지에서 월간 종합잡지 『삼천리』를 창간했다. 그 기념으로 문사(文士) 37인으로부터 조선을 대표하는 ‘반도(半島) 8경’을 추천받았다. 설문 조사 결과 1위는 금강산(34명), 2위 대동강(28명), 3위 부여(21명), 이어 경주(13명), 명사십리(11명), 해운대(10명), 축석루(8명), 백두산(8명) 등이 꼽혔다. 이 설문 조사에서 ‘종로’를 ‘반도 8경’의 한 곳으로 꼽은 문사들이 있다. 심훈(沈熏, 1901~1936)과 임화(林和, 1908~1953)였다.



1 해방 직후의 종로 네거리 풍경. 2 종로를 ‘반도 8경’의 하나로 꼽고 작품에 녹여낸 시인 심훈. 3 종로 네거리를 “내 고향”이라고 한 시인 임화.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령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지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심훈, ‘그날이 오면’ 부분

조국 광복의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종로 인경”(보신각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다가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라고 노래했던 심훈은 특히 ‘유창상점 3층 『종로』’를 ‘반도 8경’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유창상회(裕昌商會)는 김재덕(金載德)이 운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이자 귀금속 상점으로서 종로2가 101번지, 보신각 바로 옆에 있었다.

당시 청년회 전국에 2000개 달해

심훈이 이곳을 꼽은 이유는 “밤마다 벌어지는 반우(返憂)의 행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우(返憂)의 행렬’이란 장사(葬事) 치른 뒤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말한다. 상실된 조국의 ‘신주’를 끝까지 지키는 일, 유창상회 3층에 모여 조국 상실에 울분을 토하고 광복의 의지를 드높이던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종로 네거리는 한말에 만민공동회 집회 장소이기도 했다. 이런 연장 속에서 민족의 깨어있음을 상기하는 조선의 심장 같은 곳으로 종로를 호명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자 영화배우이던 임화는 ‘반도 8경’으로 ‘부산 잔교’, ‘경성역두’, ‘신의주 세관’ 그리고 ‘종로 네거리’를 꼽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과거 조선과 민족의 표상에 주목한 데 비해 임화는 ‘지금 여기’, 근대성이 충만한 장소

에 주목하고 있다.

임화가 ‘반도 8경’으로 꼽은 곳의 공통점은 관문이자 두 힘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경계(境界) 지점이다. ‘부산 잔교’는 일본 제국이 식민 지배를 관철하는 통로이자 한국인들이 배움이나 일 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는 출발점이었다. ‘신의주 세관’은 대륙과 한반도의 국경, 일본 제국의 검문이 삼엄한 접점이다. 자본과 권력과 정보와 사상이 집중된 서울, 그 관문이 또한 서울역 곧 ‘경성역두’이다. 그 서울의 중심에 종로가 있는데, 임화는 독특하게 ‘종로’라고 하지 않고 ‘종로 네거리’라고 특정했다. 서로 다른 힘들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경계 지점, 관문으로서 ‘종로 네거리’를 꼽았던 것이다.

임화는 자기 운명의 전환점이나 결단의 순간에 스스로를 ‘종로 네거리’에 세우고 향방을 가늠하는 시 3편을 발표한 바 있다. ‘네거리의 순이’(1929), ‘다시 네거리에서’(1935), ‘1945년, 또다시 네거리에서’(1947)가 그것이다. 그는 ‘종로의 시인’이었다.

오오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네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駱山) 밑 오막살이를 나와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부분

종로 이화동 낙산이 집이었던 임화는 종로 네거리를 “내 고향”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13세(1921년) 때부터 17세(1925년) 때까지 거의 매일 종로 네거리를 지나 보성고보를 등학교하던



1929년 문인 37명 대상 설문조사 심훈·임화 ‘반도 8경’에 종로 꼽아

심훈 “밤마다 벌어지는 반우 행렬” 광복 의지 불태운 유창상회 표현

임화 “종로 네거리는 내 고향이다” 새 계획 꿈틀대는 중심지로 묘사

청년조직·언론기관도 종로서 출발 민족·문화·사회·사상운동 메카로

서 ‘청년’으로 성장했다. 1906년 수송동 46번지(지금의 조계사 자리)에서 개교한 보성중학교는 1922년 5년제 보성고 등보통학교로 개칭하였고, 1927년 해화동 1번지로 이전했다. 임화는 감수성 예민한 10대 중반 5년 동안 종로 네거리로 등학교하면서 성장하였고, 청년이 되고자 학교를 중퇴하고 거리를 뛰어나왔다. 그리고 시인이 되었다.

눈바람 찬 불쌍한 도시 종로 복판에 순이야! (중략)

근로하는 청년, 용감한 사나이의 연인 아...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나이가 젊은 날을 싸움에 보내던 그 손으로 지금은 젊은 피로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

(중략)

자 좋다, 바로 종로 네거리가 아니냐! 어서 너와 나는 빈개같이 손을 잡고 또 다음 일 계획하러 또 남은 동무와 함께 검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네 사나이를 찾고 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인 용감한 청년을 찾으려... 그리하여 끝나지 않는 새로운 용의(用意)와 계획으로 젊은 날을 보내라

-임화, ‘네거리의 순이’ (『조선지광』 1929.1) 부분

임화가 생각한 ‘종로 네거리’는 ‘청년’이 고투하는 장소였다. ‘청년’이라는 시어가 7번, ‘젊은’이란 시어가 7번이나 등장한다. “눈바람 찬 불쌍한 도시 종로 복판”의 주제는 ‘청년’이다.

종로 네거리는 청년이 만들고, 청년을 만들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들의 거리라는 것이 임화의 사상이다.

노동·여성운동 조직도 종로에

조선의 중심이 종로 네거리라는 의식은 바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며, 조선의 미래는 종로 네거리에서 청년들이 일어나갈 것이라는 주제를 설파하고 있다. 감옥에 가들지라도 청년은 굴하지 않는다. “젊은 피”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힘이다. “검은 골목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은 종로의 골목이 “끝나지

않는 새로운 용의와 계획”이 꿈틀대는 아지트이기 때문이다. ‘종로 네거리’는 임화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인큐베이터이자 기획하고 운동하는 아지트이고 이들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청년’은 루소가 『에밀』(1762)에서 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청년기를 설정하고 다음 사회를 준비하는 주제로 등장하였다. 1880년대에 일본에서 근대적 인간형으로 ‘세에넨’(青年)이란 말이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는 1905년을 전후하여 ‘청년’이란 말이 급속도로 쓰이기 시작했다.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책이 필독서가 되었다.

3·1운동 이후 개조와 계몽의 열기 속에서 ‘청년’은 민족과 사회 그리고 진보의 동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청년회(青年會)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전국적으로 2천 개에 달했다. 마침내 전국 차원의 조선청년회 연합회가 1920년 말 결성되었다. 청년들은 집합적 결속력을 조직화하고 자기들의 이상을 미디어로 발신하며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떠올랐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세종로 네거리 광화문동 209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아성(我聲)』, 즉 ‘우리의 소리’라는 기관지를 출간했다. ‘아성(我聲)’=‘우리의 소리’는 곧 ‘조선청년회연합회의 합성’이었던 것이다. 열화와 같은 청년운동은 문화·사회·노동·여성·언론운동은 견인하였다. 1923년을 전후하여 조선청년회연합회가 광화문동에서 종로 건지동 80번지로 이전하면서 청년의 아지트가 종로 네거리로 옮겨졌다. YMCA회관도 ‘청년회관’이라고 불렸다.

동아일보(종로구 화동 138), 조선일보(관철동 249→건지동 111→태평동), 중앙일보(건지동 60), 조선중앙일보(건지동 111) 등 언론기관도 종로에서 출발했다. 동아일보는 창간에 즈음하여 ‘국가와 사회의 진보적 세력을 대표하는 자는 청년’(1920.5.26.)이라고 선언하였다. 신홍청년동맹(관수동 92번지), 조선불교청년총동맹(수송동 44번지), 조선노동공제회(종로 2정목 67번지), 노동연맹회(건지동 88번지), 신사상연구회(낙원동 173), 여성운동 조직이었던 근우회도 공평동 43번지에 자리 잡았다. 또 보성·중등·숙명·동덕 등 학교가 우정국로 주변에 있었고 경기·서울·휘문·덕성·정신·진명 등도 종로에 있었다. 학생들은 종로에서 청년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1920년대 종로 네거리 일대, 특히 우정국로 주변은 조선의 민족·문화·사회·사상 운동의 메카였고 그 주체는 청년들이었다.

정우택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Woo's Auto Repair Service

엘리컷 BP가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메이터

T. 410-313-8039 c. 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문 정부, 셀트리온에 코로나 R&D 예산 522억 몰아줬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셀트리온 등 제약사에 약 830억 원을 지원한 뒤, 막상 연구 성과 평가에는 손을 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과기부 혁신본부가 복지부에 배정한 R&D 예산은 1686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절반인 832억2000만 원을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에 지원했다. 특히 셀트리온이 항체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522억원의

국비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 '코로나19 신약개발 사업단'이 과제별로 총 10개 제약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지원금의 62.7%가 셀트리온에 집중된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생산을, 백신은 내년엔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흘 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인천 셀트리온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서 회장으로 부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

을 들었다. 서 회장은 그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연말 치료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은퇴하겠다"고도 했다. 정작 2021년 2월 셀트리온이 발표한 항체치료제 '헥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코로나 변이에 효과가 떨어져 시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혜숙 당시 과기부 장관도 2021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언제 되느냐"는 질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1년 만에 방역 당국이 의료기관에 헥키로나주 신규 공급을 중단하면서 국산 치료제 개발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도 정부의 셀트리온 연구 성과 평가는 다른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사업단이 복지부에 제출한 2021년 1~9월 진행된 셀트리온의 치료제 임상 연구 최종평가는 '우수'였다.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 4단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같은 치료제 개발로 국비를 지원받은 대웅제약과 녹십자는 각각 '미흡'과 '보통'을 받았다. 사업단은 2021년 7월~2022년 5월 진행된 셀트리온의 비임상 연구에도 '보통'을 줬다. 같은 평가에서 한미약품·압타머사이언스는 모두 '미흡'이었다. 복

지부는 "사업단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이라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예산을 준 과기부는 아예 2020년 4월 이후 바이오의약품 기술사업 성과 평가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셀트리온이 국비를 지원받아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를 경신했고, 서 회장 보유 주식 가치도 3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전형적인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R&D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남부발전 사택 24억에 산 뒤 동서발전에 100억에 팔려 한 직원들

감사원 "내부정보 빼돌린 알박기" 채희봉 전 가스공 사장 '호화출장' 1박 260만원 호텔 스위트룸서 3박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사택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 100억 원에 팔려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울산시 남구의 사택 단지를 한국동서발전과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다. 2014년 공기업 개혁 여론이 거세지자 남부발전은 자신의 사택 지분을 팔기로 했다. 동서발전이 약 45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매각하지 않고, 대신 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동서발전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 이어서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부발전은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공매 공고를 냈다. 특히 유찰 때마다 이사회 심의 없이 가격을 8~10%씩 임의로 내렸다. 이 과정에서 남부발전의 사택 매각 담당자 A씨는 다른 직원 B씨에게 "입찰자가 없다"는 정보를 흘렸다. B씨는 A씨를 포함해 전·현직 남부발전 직원 등 14명과 함께 조합을 만들어 23억7000만 원에 사택 지분을 낙찰 받았다.

B씨는 6년 뒤인 2020년 동서발전에 "사택 지분을 100억 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감사원은 B씨 등 남부발전 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전형적인 알박기 투자"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는 출장에서 하룻밤에 260만원인 호텔 스위트룸에 3박 묵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례도 담겼다.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인데,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은 48만원이다. 가스공사 3급 이하 직원 중 87.6%가 시간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상 휴가를 받았다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인카드 대신 결제를 지시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C사무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난방공사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897회, 3827만원 유용했다. C사무관은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는 난방공사 직원을 강원도 삼척까지 불러 식사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자녀 도시락을 준비하게 한 정황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C사무관을 수뢰·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자부는 그해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묵살했다.

박태인 기자

야당 "영터리 대법원장 추천 사과를" ... 여당 "진보 김선수 대법원장 추천 노리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일부 상임위원회가 과열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이날 열린 10개 상임위마다 각종 현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공백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영터리 같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국민이 법관 전부에 대해 오해하게 한 것은 여러분(법원) 책임이며 행정처장이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으로 얻을 이익도 없고, 신고하더라도 불이익도 전혀 없는데 단순 과실을 민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권위를 장기화해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속 보고를 했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을 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하면 진보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을 두고 한 얘기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위원장직에서 질의하면 민주당은 단재 퇴장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평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각 사유 중 이렇게 자제하고 수미일관하며 논리가 있는 건 근래 보기 드물다"고 했다.

반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빠진 거라곤 이재명 대표의 자백밖에 없는데 자백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지만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좌석 앞에 붙이자(작은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내리려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신장관(오른쪽)이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하자 회의를 떠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니지 않나"며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법정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부조정실장을 포용한 것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포용을) 허용한 것은 심각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방위 국정감사는 야당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 피켓팅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파행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청문회 때 신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 이(피켓팅)를 구실로 국민의 힘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국방위 국감은 8시간가량 개이가 지연됐고, 오후에 야당 중심으로 약 1시간만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예시로 들어 '가짜뉴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김병욱 의원)라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방통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응팀 신설에 대해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조승래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반박하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험적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맞받았다. 문현경·김기정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er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5
2020년
코스모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를린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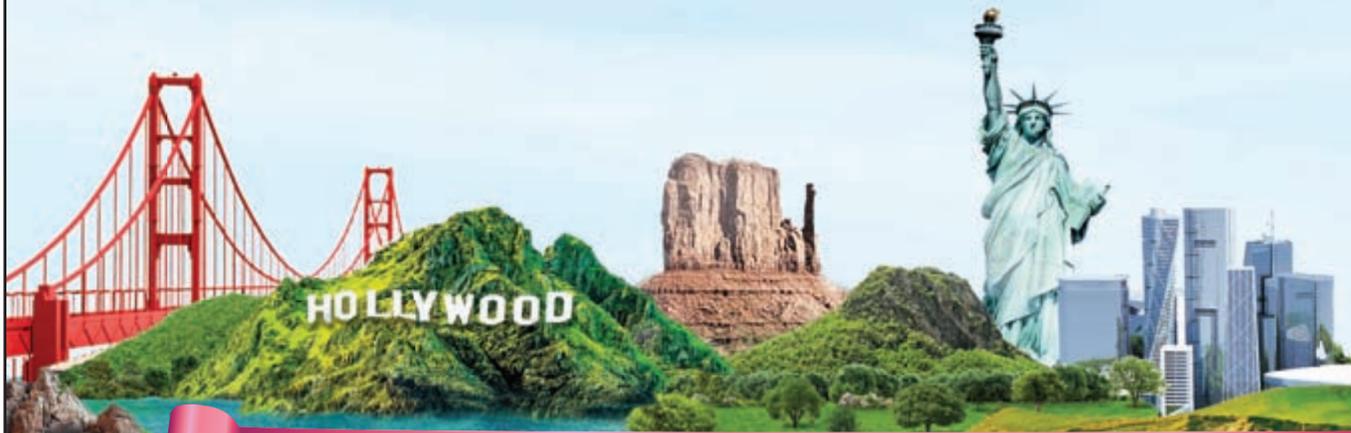


16% ALC/VOL. Hitejino America, Cerritos, CA. Please drink responsibly.



원조의 맛은 그대로~
제로 슈거로 칼로리는 쏘~옥!

소주의 핑크시대 개막 초말콤하게 미국랜딩



진로 제로 슈거 핑크 에디션

EASTERN WHOLESAL, INC.
301-470-0310

소주의 원조 진-로

하마스 손에 북한제 로켓... 북, 중동서도 무기 공급 '큰손'?

이란 거쳐 전달됐을 가능성 높아
북, 2014년에도 무기 제공 계약

빈살만 "팔레스타인 평화 지지"
하메네이 "이란 배후설 틀렸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나왔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대러 무기 지원국으로 부상한 북한이 중동에도 무기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군사 전문 블로거 '워 뉴아르'를 인용해 "하마스 대원 한 명이 북한에서 제작된 85mm F-7 고폭 파편 로켓을 소지한 것이 식별됐다"고 보도했다.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인 F-7이 우회로를 통해 하마스 등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틀 엔젤로우립대 교수는 RFA에 "하마스가 이전부터 북한의 F-7을 사용해 왔다"며 "이번 전쟁에서 F-7뿐 아니라 다른 북한 무기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선 북한산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 로켓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오랫동안 북한의 주요 무기 밀수출 대상국이었다. 벡틀 교수는 "이스라엘은 북한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헤즈볼라로 향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2014년에도 북한은 하마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107·122mm 다연장 로켓 발사기,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과 이란 등 중동 국가와의 무기 거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호 의존·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돼 왔다"며 "북한 미사일 체계의 근본이 되는 스

카드 관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은 상호 기술 이전과 제이전 과정을 거치며 기술 고도화를 달성해 왔던 전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란 가운데 아랍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10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절한 권리,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주도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온 사우디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에 난감한 입장이다. 사우디로서는 그간 이슬람의 적대 세력으로 배척해 온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탄압받는 이슬람 일원인 팔레스타인 행위를 규탄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는 10일 하마스의 공격 배후가 이란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편을 드는 자들은 지난 2~3일간 이번 행동 배후가 이란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틀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시온주의 정권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사람들 손에 입을 맞춘다"며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동의 친구"라며 "양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안보와 발전을 함께 향유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진정 희망한다"고 중재 의지를 밝혔다.

워싱턴·베이징·김경우·신경진 특파원 강태화 기자



1 유명 블로거 '워 뉴아르'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하마스의 무기. 사진 속 무기는 북한에서 생산한 F-7 로켓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 포병이 9일 포탄을 점검하고 있다. 3 이스라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과 여성이



3 이스라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과 여성이

합참 "하마스 기습 성공적... 우리 군도 교훈 삼아야"

북 모방 가능성... 대비책 마련 강조
신원식 "9·19 합의 효력정지 노력"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놓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돼 우리 군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철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마스가 기습작전을 통해 로켓포 수천 발과 고속상륙정 등을 활용한 육·해·공 침투로 최소 21개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며 "하마스의 기습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강 본부장은 "짧은 시간 내 로켓포 공격으로 이

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간과 수단, 방법 측면에서 적이 활용 가능한 비대칭적 공격 형태가 식별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측면에선 유대교의 안식·기림일인 휴일 새벽을 틈타 공격했고, 소규모 침투·습격부대, 로켓포·트럭·패러글라이더 등 기존 재래식 전력과 민수용 장비까지 활용해 수단을 다양화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이를 모방할 것에 대비해 시행 가능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아이언돔과 더불어 국경 일대 과학화장계시스템이 무력화된 점

을 들며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40문을 최대한 가동해 한 시간에 1만6000여 발을 쏟아붓는다면 2026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가 배치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이스라엘이 무인기 등 항공전력을 띄워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을 것"이라며 "항공 감시·정찰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트럼프, 연일 바이든 공세... "테러리스트 수만명 입국 허용"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을 2024년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유력시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실패 탓으로 규정하고 재선시 반(反)이민정책 강화를 재차 공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내 재임시 4년간 아무 문제 없었다"면서 "왜냐하면 입국금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폴리티코 등이 10일 보도했다.

그는 "4년 전만해도 중동에 평화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치르고 있으며 (이는) 매

우 빠르게 확산할 것이다.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랍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살인은 미국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재선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제시



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테러리스트로 추종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슬람 국가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최고가 SOLD

\$985,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SOLD

\$680,000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클리프턴 싱글홈

SOLD

\$1,350,000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우드브릿지 타운홈

SOLD

\$400,000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이스라엘 공습에 하마스 간부 둘 사망... CNN “인질 넷 피살”



3 전해 속에서 대화하고 있다. 4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난 7일 이스라엘의 한 키부츠(집단농장)에서 민간인을 인질로 붙잡아 가자지구로 데려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 추산에 따르면 약 150명이 인질로 억류됐다. [위 누아르 X 캡처, EPA-AFP-AP=연합뉴스]

▶ 1면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부 암살작전도 돌입했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는 데타임스에 “서방이 ISIS를 대할 때 했던 것처럼 하마스를 겨냥해 모든 방면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작전적으로 하마스 지도부와 전투원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동시에 국제적·외교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DF는 이스라엘 남부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으면서 무장 침투한 하마스 세력 시신 약 1500구를 발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하마스는 인질 살해 협박으로 맞섰다. 하마스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9일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때마다 이스라엘 인질을 한 명씩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 인질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질 일부가 이미 살해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은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 영상을 자체 분석해 납치된 민간인 중 최소 4명이 억류 중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15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나후와 참모들은 납치된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 하마스가 일부 인질을 처형하고 일부는 ‘인간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에 인질로 잡힌 미국 시민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럴 우리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 주요국과 공동전선을 재확인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4개국 정상과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 지상군을 이스라엘 땅에 배치할 계획은 없다”면서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 등 항모 전단의 동부 지중해 전진배치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서방은 팔레스타인 지원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연

합(EU) 집행위원회는 총 6억9100만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조가 하마스에 직접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독일도 당초 지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오스트리아는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나흘째 계속됐다. IDF는 지난 9일 밤새 하마스가 사용하는 건물과 무기보관소인 이슬람 사원 등 가자지구 내 200곳이 넘는 시설을 로켓 등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자와드 아부 삼말라와 자카리아 아부 마마르 등 하마스 고위 관리 2명이 숨졌다. 10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최소 1000명, 가자지구에선 77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부 암살작전도 돌입했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리는 데타임스에 “서방이 ISIS를 대할 때 했던 것처럼 하마스를 겨냥해 모든 방면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작전적으로 하마스 지도부와 전투원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동시에 국제적·외교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DF는 이스라엘 남부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으면서 무장 침투한 하마스 세력 시신 약 1500구를 발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방은 팔레스타인 지원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총 6억9100만 달러 상당의 개발원조 계획 전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조가 하마스에 직접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태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독일도 당초 지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오스트리아는 재정지원을 중단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나흘째 계속됐다. IDF는 지난 9일 밤새 하마스가 사용하는 건물과 무기보관소인 이슬람 사원 등 가자지구 내 200곳이 넘는 시설을 로켓 등으로 파괴했다고 밝혔다.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자와드 아부 삼말라와 자카리아 아부 마마르 등 하마스 고위 관리 2명이 숨졌다. 10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최소 1000명, 가자지구에선 77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소영·강태화·이유정 기자

3세 아기, 85세 할머니, 외국인 관광객도 인질로

가족들, SNS에 뜬 영상으로 확인 하마스 “인질 처형” 위협에 발동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던 지난 7일(현지시간) 노아 아르마가니(25)는 가자지구에서 약 10km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한 키부츠 음악축제 현장에서 인질로 붙잡혔다. 그의 가족은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 야코프는 8일(현지시간) 현지 인터뷰에서 “영상 속에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있더라. 아이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어린이와 노약자, 외국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삼으며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BBC·CNN 등에 따르면 하마스가 이날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발표하자 연락이 두절된 가족·친지들 등 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스라엘 중부 가노트에 사는 요니아셔(37)는 아내(34)와 다섯 살, 세 살 배기 두 딸, 장모까지 하마스에 끌려갔다. 가족은 가자지구 인근 친척 집에 머물던 중 연락이 끊겼다. 이후 하마스의 인질 트럭에 가족이 함께 실려 있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찾았다.

소셜미디어에선 하마스 대원들이 한 노인을 골프 카트에 태워 가자지구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도 유포됐다. 야파 아다르(85)로 알려진 이 여성의 손녀 아드바 아다르는 “지병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겁나던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이 추산한 약 150명의 인질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국적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악축제 현장에서 만나게 상태로 하마스에 끌려간 독일인 사니 루크(22)의 어머니 리카르다는 CNN에 “한 영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끌려가는 딸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국에 입국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10여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반(反)이민 정책 강화 공약을 통해 예고했으며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지난 7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을 하면서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자금을 풀어준 것을 직접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유로 “미국이 인질들에 대해 이란에 60억 달러를 주고 있고, 갇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해왔다는 이유를 토대로 동결 자금 해제와 공격

을 연결한 것이지만, 해제된 자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바이든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인 지난 2018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노골적으로 실시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중동 국가의 반발을 산바 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웬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들리 지역]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윤 대통령 “중동 리스크 대응, 민생에 전력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 “국내의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분쟁은 국제유가 상승을 불러

오고,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 왔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낙관은 금물이다.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국정 감사 때마다 불필요하게 기업인 증인 신청을 많이 하는 관행에서 이제 벗어

났으면 좋겠다”며 “국감이 기업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민폐를 끼치는 자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업인을 줄소환해 억박지르거나 장시간 대기시키다가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검경 경쟁 말고 협력해야”= 윤 대통령은 검찰에도 보완수사·재수사권을 주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동 기자

현일훈·박태인 기자

하태경 마포을 출마설... 여당 “정청래·안민석에 자객공천을”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일 강서구 화곡역사거리 인근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오른쪽)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투표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진행된다. [뉴스1]

부산 해운대갑 3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 서울 출마를 선언한 후 당내에서 자객 공천론이 떠오르고 있다. 대선에다 비교적 대중 인지도가 높은 하 의원의 만큼 야당 강세 지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4선이 보장된)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로 올 때는 강남 3구가 아닌 험지 출마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에서는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몇몇 있지 않느냐. 정청래(3선-서울 마포을) 의원도 있고, 그런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자객공천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도 CBS라디오에서 “하 의원도 (저객 공천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

을 것”이라며 공천 지역구를 “보수에서 지탄받는 민주당 인사인 정청래의원,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 지역구”로 예상했다. 민주당 출신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8월 초 하 의원에겐 마포을 출마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을은 국민의힘으로선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험지’로 꼽힌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당선(18대)을 마지막으로 19(정청래)·20(손혜원)·21(정청래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오산 역시 안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텃밭이다. 정청래-안민석 의원은 야당의 강성 스파키인 터라 여당에선 ‘눈엍가시’로 평가받는다.

여당 입장에서 두 지역은 뺏아야 할 지역구인 동시에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 곳을 하 의원에겐 출마 권유하는 건 “거기에 맞상대할 만한 사람은 하 의원이라고 봤기 때문”(이용호 의원)이다. 이 전 대표도 “하 의원은 능력 있는 파이터 기질이 있다”며 “경기도에 가서도 파이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의 마포을 출마설이 거론되자 정 의원은 “마포을은 험지가 아닌 사지일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KBS 라디오에서 “내가 무슨 안동역이나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는다”고 너스레도 놓았다. 이어 “저는 하 의원은 약체라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평분·흥행·승산 세 가지 요소를 고민해 천천히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물밑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마포을을 포함해 경기도까지 모두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을 ‘약체’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저하의 싸움은 피하고 싶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선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놓고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김병민 최고위원),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중진의원 협치 출마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말계 제2, 제3의 하 의원 같은 중진들의 현신이 탈레이처럼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며 연일 압박 발언을 이어갔다.

김준영 기자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 96세에 떠난 ‘사랑의 시인’

(시 ‘편지’의 첫 구절)

삶과 추억 김남조 시인

“태어나서 좋았다고, 살게 돼서 좋았다고, 오래 살아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2016년 영인문학관 전시 ‘시와 더불어 70년’ 인사말) 김남조 시인이 10일 낮 12시59분 세상을 떠났다. 96세.

6년 전의 이 인사말에서 시인은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과분한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때를 “좋은 시대” “좋은 나라”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대구에서 태어

났고, 일본 규슈여고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 일본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1500명 중 하나뿐인 한국 아이라고 일본 아이들이 구경하러 와서 둘러쌌다. 가슴 속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불명이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제일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신문에 날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1947년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들어가면서 문학소녀의 꿈을 이루려 했는데 6·25 전쟁과 맞닥뜨려야 했다.

“돌맹이처럼 어느 산야에고 굴러/ 그 래도 죽지만 않는/ 그러한 목숨이 갖고 싶었습니다.”(시 ‘목숨’)

1953년 피란지 부산에서 첫 시집 『목숨』을 낸 때가 26세였다. 이어 『사랑 초서』 『마라 세레』 『사랑하리, 사랑하리』 『심장이 아프다』, 그리고 『사람아, 사람아』(2020)까지 19권의 시집에서 고인이 자신에게 내린 지상명령은 사랑이었다.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고통 속 치유, 영혼과 사랑의 미학”(유성호 문학평론가)을 선사했다. 스스로는 “누군가는 원고지를 하얀 사막이라 하더라. 나는 늘 백지 앞에서 기 죽고 초라하고 캄캄했다. 문학은 모든 것의 뒤에 있으며, 예술가는 저마다 홀로 있는 이

들”이라고 돌아봤다.

막막한 가운데 써내려간 1000편 넘는 시에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다. 그의 시 ‘편지’의 첫 구절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가 2019학년도 수능시험 필적 확인 문구로 쓰이면서 당시 응시한 59만여 수험생의 마음을 보듬었다. 그의 시 “좋은 것의 한 구절 ‘읽다 접어둔 책과 맥고백하려는 사랑의 말까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에 내걸려 바빠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살리게 했다. 그의 시에 곡을 붙인 송창식의 노래 ‘그대 있음에도 널리 사랑받았다’.

고인은 1955년 숙명여대에서 처음 강단에 섰고, 1993년 명예교수로 정년퇴임했다. 한국

시인협회장, 한국여성문학인 회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3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8년 은관문화훈장, 2007년 만해대상 등을 받았다.

그의 남편은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상으로도 잘 알려진 조각가 김세중(1928-86)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다. 미술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시인은 남편과 함께 살던 서울 효창원으로 자택을 사해 5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2015년 ‘김세중 미술관-예술의 기쁨’을 개관하기도 했다.

장례는 시인협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2일이다. 유족은 아들 김남(김세중미술관장)·석(디자이너)·범(화가), 딸 정아(가천대 명예교수) 등이다.

권영기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뽕뽕)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우리말 바꾸기

‘주십시오’와 ‘주십시오’

“연말 모임은 취소해 주십시오!” 처럼 당부를 전할 때 주의할 표현이 있다. ‘주십시오’를 ‘주십시오’로 고쳐야 바르다.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는 ‘-오’가 아니라 ‘-오’이기 때문이다. 앞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마지막 어미가 [오]로 소리 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하십시오체뿐 아니라 “도와주시오” 같은 하오체 문장도 ‘-오’로 끝난다. ‘-오’는 어떤 사물·사실 등을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다. “이건 두통약이요, 저건 감기약이다”처럼 사용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 게 좋지요”에서의 ‘오’는 무엇일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어미 뒤에 덧붙은 것이다. 연결어미 ‘-오’나 종결어미 ‘-오’는 생각할 수 없지만 보조사 ‘오’는 떼어 내도 말이 된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 게 좋지요”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와 ‘-오’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바로 하오체다.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자리에 두루 쓰이면서 혼란을 부른다. “말씀하세요”에서 ‘-세요’는 ‘-시어오’의 준말이다. ‘-사’는 선어말어미고 ‘-어’는 종결어미다. 이들 어미 뒤에 붙은 ‘오’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말씀하세요”도 마찬가지다. 어미에 보조사 ‘오’가 결합한 말이다. “말씀하십시오”와는 구별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시론

동포청, 한인 이민사 교육에도 관심을



장태한 UC리버사이드 교수 김영육재미동포연구소장

인천광역시 해외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한미동맹 및 인천상륙작전 73주년 행사에 초대되어 인천광역시를 방문하고 왔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상륙작전이 한국 전쟁의 전환점이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를 방문하면서 최근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동포청)을 방문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을 만나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이 지나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듣는 기회도 가졌다.

재외동포청의 기본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과거 재외동포재단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 청장은 과거 재외동포재단이 단순히 정부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호혜적인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수립과 이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정책을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그동안 국내 거주 재외동포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정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여러 부처로 나누었던 민원서비스를 통합민원서비스로 통합해 재외한인들의 편의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도 동일한 수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동포청은 한글학교 지원 강화 정책으로 운영비를 대폭 증액하고 교사연수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주 지역 한글학교와 한국어 강좌는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필자는 이제 방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다. 수강생들에게 미주 한인사회 역사와 문화도 함께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들에게 코리아-아메리칸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타인종 학생들은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다만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 발전상을 교육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을 함양시킨다는 계획이다.

차세대들이 모국의 발전상에 대해 알면 분명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주 한인’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도 생긴다. 따라서 미주 한인사와 모국의 발전상을 동시에 교육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재외동포 웰컴센터도 동포청과 같은 빌딩에 입주해 재외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포청과 인천광역시가 잘 협조해 성공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길 바란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했다. 별로 크지 않은 캐리온 가방을 들고 송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에 타려고 하자 운전기사가 큰 소리로 “이런 가방 들고 타면 안 돼요”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 어디에도 캐리온 가방 휴대를 금하는 문구는 없었다. 그 운전기사는 “이번은 봐주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며 선심 쓰듯 말했다.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진 듯 망신스러웠다. 모처럼의 한국 방문이라 필자가 모르고 한 실수일 수 있지만 운전기사의 반응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했다는 억울함도 들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가운데는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광장

I Love My Wife



윤재환 전 연방공무원

오늘 아침 마켓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옆에서 있는 차문에 ‘I Love My Wife’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누구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 그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가. 언제 아내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했었나.

나를 포함해 한국 남자들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여태까지 살았다고 대답한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남자가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침묵을 장려했다. 나도 모르게 말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평생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 만나면 시시콜콜 말이 많다. 그것이 ‘heart-to-heart talk’, 즉 흥금 없는 의사소통이란 것을 이 바보는 몰랐다.

한 번은 직장에서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다. 가만히 지켜보니 미국인들은 아내를 극진히 모셨다. 아내를 먼저 차에 태우고, 도착하면 문을 열고 손을 잡아준다. 나도 할 수 없이 그들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내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차에서 먼저 내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20분 가까이 기다려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았다. 주차장에 가 보았더니 아내는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와 2~3시

간 동안 통화를 하기도 한다. 그런 아내와 결혼하고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내가 말하고 나는 듣기만 하는 편이었다. 주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이들이 떠나간 지 오래되었다. 아내와 나는 이제는 할 말이 없다. 대화의 소재가 바닥이 났다. 우리는 한 집에서 두 살림을 차리고 산다. 나는 이층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TV를 보고, 낮잠을 잔다. 아내는 아래층에서 신문을 읽고, 성경을 복사하고, 컴퓨터로 유튜브 기사를 듣는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세 끼니때다.

이제는 아내에게 좀 더 관심을 두고 보살펴 주리라 생각해도 실천이 쉽지 않다. 대신 아내를 위해 김치와 빵도 만들어 준다. 세 끼 밥상을 차려주고 설거지도 내가 한다.

우리 부부는 자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 그 날의 생활 보고다. 보고, 느낀 것을 주고받다 보면 한쪽이 조용해진다. 나는 ‘good night’이라고 속삭인다. 아직 ‘I love you’란 말은 잘 나오지 않는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이십 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십여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김태정의 ‘천억 비자금설’ 수사 유보, 대선 때 나를 살렸다”

(당시 검찰총장)

(97년)

김대중
육성 회고록 (21)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올라탄 나, 김대중(DJ)의 대권 레이스는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웠다. 생애 네 번째 대권 도전이던 1997년 15대 대선 초반에는 그랬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한나라당 이회창-국민신당 이인제 후보의 3자 구도에서 선두를 달렸다. 나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회창은 ‘3김 청산’을, 이인제는 ‘세대교체’를 외치며 경쟁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풍이 몰아쳤다.

실체 없는 1000억원 비자금 폭로

첫 번째는 비자금 의혹. 이회창 후보 측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한 비열한 짓이었다.

이 후보의 신한국당(11월 21일 민주당과 합당 뒤 ‘한나라당’으로 개명)은 대선을 두 달 앞둔 10월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이란 사건을 터뜨렸다.

내가 1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20억원 외에 돈이 더 있다는 ‘20억+α(알파) 수수설’도 흘렸다.

이회창 전 총리가 후보로 선출된 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자 국민전환을 위해 벌인 흑색선전이었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돈에 팔촌의 계좌에 엄청난 돈이 은닉됐다고 떠벌렸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지만, 내 도덕성을 더럽히려는 의도로 거칠게 물고 늘어졌다. 여당이 흘리고 언론이 부풀려 보도하니 의혹은 사실처럼 둔갑해 삼시간에 눈덩이처럼 커졌다.

당할 수만은 없었다. 비자금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계좌를 모두 뒤져 규명하자고 반격했다.

정작 여당은 국정감사를 피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과장해 선거에만 써먹으려는 계산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릴 테니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태정 “근거 없이 어떻게 수사하나”

이회창 후보 측에서는 검찰에 수사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감사장을 소집했더니 한 명인가 빼놓고 다 수사하자고 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버텼다. 김 총장은 10월 21일 나에게 대한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을 대선 이후로 유보하기로 결단했다. 이유가 명확했다.



1 김태정 검찰총장이 1997년 10월 21일 신한국당이 고발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15대 대선 후보 비자금 의혹의 수사를 선거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 15대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둔 1997년 12월 15일 그룹 ‘코리아나’와 함께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3 1997년 12월 18일 투표가 이뤄진 15대 대선 후보의 공식 포스터.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

김 총장이 수사를 결정했다더라면 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검찰이 조사한다’ ‘압수수색한다’고 떠들고, 마치 뭔가 있는 듯 언론에 흘리면 “조작됐다”는 항변은 먹혀들지 않는 법이다.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다. 그사이 선거는 끝나고 의혹 자체에 대한 관심은 증발해 버릴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김 총장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덕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색깔론에 북풍-총풍 동원

두 번째 악재는 색깔론과 북풍(北風). 대선 때마다 나를 향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매뉴다.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97년 8월 천도교 교령(오익제)이 평양 방송에 나와 월북 직전 국민회의 후보(DJ)와 통일 문제를 자주 거론해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세의 한울

남”이라고 찬양했던 오익제가 사전에 나와 얘기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퍼뜨렸다. 한나라당이 일제히 공격에 가세했다.

총풍(銃風)도 동원했다. 여당 측 사람들이 중국 베이징에 가서 북한 대표를 만나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일으켜 주면 지원을 하겠다며 공작을 폈다.

71년, 87년, 92년 출마 때는 색깔론이 국민에게 먹혔다. 나는 색깔론 공격에 상심했다.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싸웠다. 좌익으로 몰려 사형 언도까지 받았다. 97년 대선 때는 달랐다. 선거철만 되면 몰아치다 선거가 끝나면 홀연 사라지는 북풍 공작, 그 실체를 국민이 꿰뚫어 봤다. 하도 여러 번 하니 약발 없이 죽어버렸다.

“이인제,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악재는 외환위기 사태. 김영삼(YS) 대통령은 집권 5년 동안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하나회를 숙청하는 등 업적을 남겼지만, 외화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굴욕을 초래했다.

나는 IMF 재협상을 주장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 IMF니 뭐니 잘 몰랐다. 미국 교포 출신 학자가 “IMF는 아르헨티나 등 어디나 얼마든지 재협상을 한다”고 조언했다. 잘못된 어드바이

스인 줄도 모른 채 TV토론에서 IMF 재협상을 폈다.

국가 차원에서 수락한 IMF 구제금융에 반대한 것처럼 비쳤다. 국가신인도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출렁대며 국가부도 위기론이 대두했다. 이회창 후보는 내가 IMF 협상을 반대해 나라를 망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판세가 상당히 불리한 지경까지 치달았다. 정부와 IMF 간 최종 합의문을 대선 후보들이 이행하겠다는 약속에서 명한 끝에 겨우 진정됐다.

또 다른 변수는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의 거취였다. 나는 그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야심 찬 성격에 배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대선 끝까지 완주한 덕분에 나오선 상대적인 이득을 얻었던 게 사실이다.

조순씨의 행보는 안타까웠다. 그는 내가 탈당한 민주당에 재입당해 총재직과 대선후보직을 받고 대선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지지도가 한참 밀려다 후보를 사퇴하고 이회창의 신한국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했다.

95년 그의 서울시장 당선에 내가 절대적인 도움을 준 것은 세상이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자 “내가 무슨 김대중씨의 도움을 받았느냐”고 했다. 점잖은 학자 출신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내 모습을 본 것 같은 노무현

노무현·김원기·유인태·원혜영 등 독자 행동을 하던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인사들의 합류도 큰 힘이 됐다.

노무현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는 88년 YS의 통일민주당으로 정계에 입문했기에 나와 당이 달랐다. 별 접촉도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부산에서 출마하는 용기를 보고 높이 평가했다.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용기에서 나를 본 것 같았다. 대통령이 된 뒤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그를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했다. 장관 경력이 그의 대선 출마 때 도움이 됐다.

나는 12월 14일 밤 진행된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이렇게 국민에게 다가갔다. “불행히도 저는 세 번이나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민이 저를 이때 쓰시려고 뽑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분이 제 등을 타고 위기의 강을 건너십시오.”

마지막 유세는 선거 전날인 12월 17일 서울 명동에서 했다. ‘대통령 후보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으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유세였다.

“저에게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40년 동안 갈고닦은 지혜와 경륜이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될 준비를 저만큼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선거 통한 ‘민심 혁명’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출구조사를 보고 이기겠구나 생각했지만 안심은 안 됐다. 개표를 다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1032만 표(40.27%)를 얻어 993만 표(38.74%)의 이회창 후보를 이겼다고 알려줘서 깨어났다. 평생 전력을 다해 나를 도운 집사람(이희호 여사)과 기쁨의 포옹을 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에 의해 여야 간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국민이 금권, 권력, 모략, 용공 조작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지켜줬다. 선거를 통한 민심 혁명이 성공을 거뒀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일생 그렇게 바라던 대통령이 됐다. 내가 소원하던 정책을 실천하겠다. 헛되게 내 인생을 마치지 않겠다.”

이튿날 새벽 일산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애국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목포의 눈물’을 불렀다. 그리고 연호했다. “대통령, 김대중!”



고대훈·강병철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시설

곳곳에 허점 드러난 선관위 보안, 신속히 강화하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를 조작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점검 결과였다.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게 운영돼 온 사실은 큰 충격이다. 총선을 반년 앞둔 마당이라 유권자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선거 불복'의 빌미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

국정원은 7월 17일부터 두 달간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의 핵심 중 핵심인 개표 시스템부터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345'

인 관리 직원의 패스워드에서 드러나듯 시스템 전반이 허술

국정원 "북, 마음만 먹으면 투·개표 조작 가능 수준" 논란 많은 사전투표 특히 취약, 특단의 보강 대책을

해 해커들이 손쉽게 득표 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사전투표 역시 보안에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들이 사전투표소의 통신장비에 연결된 외부 비인가 PC망을 타고 통합 선거인명부에 침투해 사전투표자를 비투표자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득표수를 위조할 위험성이 발견됐다. 사전투표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도장도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사전투표지와 QR코드가 같은 가짜 투표지도 대량 인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허술한 관리를 틈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가 2021년 선관위 직원 메일함을 해킹해 대외비 자료를 빼낸 사

례까지 확인됐더니 충격은 더하다.

다행히 이전 선거들에서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망을 뚫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점검 결과 2020년 총선 등 과거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결부시켜 논란을 증폭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해킹에 선관위 방화벽이 취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선관위는 속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선 내년 총선 전까지 해킹에 100% 안전한 보안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사전투표가 해킹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엔 더욱 강도 높은 방화벽을 쳐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축소 등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선관위는 "투·개표는 실물로 진행돼 조작이 불가능하고 해킹도 다수의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취약한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선거인명부 서버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안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선관위는 변명에 앞서 그동안 자신들의 보안 수준이 유권자가 원하는 선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결정난 지난해 대선에서 보듯, 늘 초박빙인 우리 선거 현실에선 보안 강도가 99.9%라 해도 안심할 수 없지 않은가. 100% 보안이 보장되는 방화벽과 엄정한 근무 자세가 선관위에 요구되는 이유다.

하마스 기습공격 양상, 대북 안보에는 문제 없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육상(픽업트럭)·해상(수상정)·공중(패러글라이더)의 세 방면으로 기습 공격해 양측 사망자가 이미 1600명을 넘었다. 1948년 건국 이후 적대 국가와 테러 세력에 둘러싸여 일상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아 온 이스라엘은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아이언돔 등 첨단 국방 장비, 시스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었다. 하지만 하마스의 기습공격 초기에 허를 찔렀다.

이스라엘의 초기 대응 실패를 보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에도 노출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마스는 로켓포 수천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6000발을 쏠 정도로 더 위력적이다.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의 지적처럼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국면에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재검토해야 할 대목이 많다.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를 무시하고 무인기 침투 등 도발을 일삼은 북

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손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육상에서는 연대급 기동 훈련과 포병 사격 훈련이 전면 중지됐고, 비무장지대(DMZ) 11개 감시 초소(GP)를 철수시켜 기습 대남 도발을 감지하기 어려워졌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비행금지선이 설정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전력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 항공 정찰자산의 대북 감시 활동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의 AN-2기 도발 징후 등을 미리 포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졌다. 요격체계 강화 등 대대적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최강이라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국내 정치의 외풍 때문에 대응 역량이 약해져 하마스의 동향 파악과 정보 분석에 실패한 사실도 우리의 국가 정보원 운용에 주는 반면교사 교훈이 작지 않다. 민주당 정권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등으로 정보기관의 역량을 위축시킨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가 안보는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국민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강한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있다. 성지 순례자와 관광객이 이스라엘을 황급히 빠져 나가는 와중에 해외의 유대인들은 조국을 지키겠다고 속속 귀국해 예비군 소집에 응하고 있다.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로 지난 몇 년간 느슨해진 우리의 안보 경각심도 이참에 다잡아 나가야 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예영준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당하는, 그것도 자신이 속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반란에 의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초유의 사태라면 한국도 뒤질 게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로 인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국내 초유라면 모 장관 후보자의 '엑시트' 소동은 인사청문회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당사자와 여당은 정회 선포 뒤 나간 것이니 션트 퇴장이 아니라 반박을 내놓았지만, 여당 의원의 "갑시다"란 소리에 자료를 챙겨 일어서는 바람에 혼란이 일자 정회를 선포한 것이다. 그런 반박은 성립이 안 된다. 편파 진행이 있었다 해도 후보자가 따라 나서서는 안 될 일이었다. 면접시험 응시자가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선 것이나 다를 게 없다. 합격을 포기했거나, 그래도 나를 붙여 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극단적 대결 정치의 귀결이란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2018년에 펴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의원들이 과반을 무기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거나 대법관 임명을 가로막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에콰도르나 루마니아 정도를 떠올렸을 것이다. 적어도 미국을 떠올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거명된 두 나라엔 대단히 실례지만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추가되지 말란 법이 없다.

레비츠키가 민주주의의 붕괴를 보여 주는 징표로 든 사례가 바로 2016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메리 갈랜드에 대한 인준 거부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앤터니 스킨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오바마는 갈랜드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은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든 청문

회도, 표결도 없을 것이다. 2016년이 대통령 선거 해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 뒤 일어난 일들은 모두 맥코널의 공언대로였다. 레비츠키는 이 사건을 미 상원이 지켜오던 150여 년 전통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이 부여한 인준 권한을 마구 휘두르지 않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 온 전통이 깨졌다는 것이다(레이건 시절 보크 판사 인준 거부 등 극히 드문 예외가 있었다). 레비츠키가 각국의 사례를 들어 설파한 데 따르면 민주주의의 버팀목은 제도가 아니라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다. 법이 허용한 권한을 절제 없이 행사하는 게 합법이라 해도 때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갈랜드를 이균용으로 바뀐다면 2016년의 미국 사례와 데자뷰다. 차이가 없

2016년 미 연방대법관 인준 거부
이균용 임명 부결 사태와 데자뷰
민주주의 버팀목은 관용과 자제

지는 않다. 공화당이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든"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숨기지 않은 데 비해 한국 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등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고결무구한 도덕성을 기대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겠지만 초유의 사법 수장 공백이란 반대급부를 치러야 할 치명적 흠결이었던지는 의문이다. 거기다 제2, 제3의 후보자도 부결시키고 민변 회장 출신의 대법체제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공연한 억측이기를 바랄 뿐이다.

내친김에 레비츠키를 조금 더 인용해 보자.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허물어지는 과정의 이면에는 당파적 양극화가 있다.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쟁 관계를 넘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이게 미국만의 일일까. 극단이 득세하는 상황은 한국 정치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쯤 되면 레비츠키의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SUNDAY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경도	주필: 이허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저작권: (주)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11, 2023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용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이유 없이 38도 이상 열나는 아이, 요로감염 의심해 봐야

서울에 사는 유모 씨는 최근 자녀로 인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6개월 된 아이의 열이 38도 넘게 올라서다. 감기라 생각해 해열제를 먹여봤지만, 잠시 열이 내리는 듯싶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뒤늦게 아이를 업고 찾아가던 병원 응급실. 진단 결과는 요로감염이었다.

요로감염은 소아에게서 가장 흔한 세균 질환이다.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서부터 몸 밖으로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에 이르는 부위, 즉 소변길(요로)에 발생한다. 신장에서 요관, 방광을 거쳐 요도에 이르는 부위 중 어느 곳에 감염됐는지에 따라 신우신염·방광염·요도염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항생제 임의로 중단 땀 재발 위험
요로감염은 대부분 장내 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 신장 등으로 올라가며 발생한다. 특히 아이들은 신장과 방광, 방광과 요도 간의 거리가 성인에 비해 짧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이로 인해 세균이 요관을 통해 신장까지 퍼져 신우신염을 앓기 쉽다. 소아가 요로감염에 많이 걸리는 때는 생후 12개월 미만 또는 대소변 훈련 시기.

돌 전에는 방광요관역류(소변이 방광에서 몸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신장이나 요관으로 역류하는 질환)처럼 선천적으로 요로계에 이상이 있거나 비포경 상태 등으로 인한 요로감염이 많은 편이다. 대소변 훈련기에는 소변을 참는 습관 같은 배뇨 문제로 요로감염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 오랜 시간 소변을 참으면 세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아이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말을 못하는 영아라면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는 "1세 미만의 요로감염에

1. 요로감염의 유형

- **하부 요로감염(방광염·요도염):**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과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에 생기는 감염.
- **상부 요로감염(신우신염):**
소변을 만드는 신장과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요관에 생기는 감염. 보통 하부 요로감염보다 치료 기간이 더 길어.

2. 소아 요로감염 대표 증상

- 특별한 증상 없이 고열 지속
- 옆구리 통증이나 복통 토로
- 소변볼 때 통증 호소
- 평소보다 잦은 소변 횟수

3. 소아 요로감염 예방법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기저귀 자주 갈아주기
- 하루에 한 번 이상 요도와 항문 주위 약한 비누로 부드럽게 닦아주기
- 배변 후 앞에서부터 뒤로 닦는 훈련하기
- 심한 변비와 배뇨 장애 치료하기
-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 요로계 선천적인 구조 이상 교정하기
- 락 끼는 옷이나 기저귀 착용 피하기
- 대소변 가리기를 너무 일찍부터 강요하지 않기

자료:서울아산병원·병원간호사회·질병관리청



그래픽=이정권 gaga@joongang.co.kr [GettyImagesBank]

감기와 증상 비슷해 오인하기 쉬워
혈뇨·화학약품 냄새 나면 소변 검사
치료 늦어지면 신장 기능에도 영향
평소 소변 참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

서는 38도 이상의 열나는 증상이 가장 흔하다"며 "이 외에 혈뇨가 보이거나 소변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보채거나 잘 먹지 않고 토하는 증상도 요로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다. 일반적으로 기저귀를 땀만 3~4세 이상은 어느 정도 증상 표현이 가능하다. 아이가 소변볼 때 아프다고 하거나 배뇨 후 또다시 소변을 보고 싶어 한다면 질환 발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신우신염이라면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다만 일부는 자녀의 요로감염을 단순 감기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연희 교수는 "미열이나 보채는 요로감염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감기 증상

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치료가 늦어지면 농양(고름집)이 생겨 항생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회복을 하기 위한 검사도 여러 차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신장에 흉터가 남아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빠르게 진단하고 대처하면 소아 요로감염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 요로감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소변 배양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소변을 가리는 아이라면 중간뇨를, 소변 가리기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라면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은 다음 관 모양의 기구인 카테터를 넣어 소변을 받게 된다.

하지수 기자

▶ 4면 '요로감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 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입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Magna Cum 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연대부고 졸업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www.carefreelandusa.com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실명과 직결되는 질환, 시력 개선 효과 없다고 치료 중단하면 안 돼

황반변성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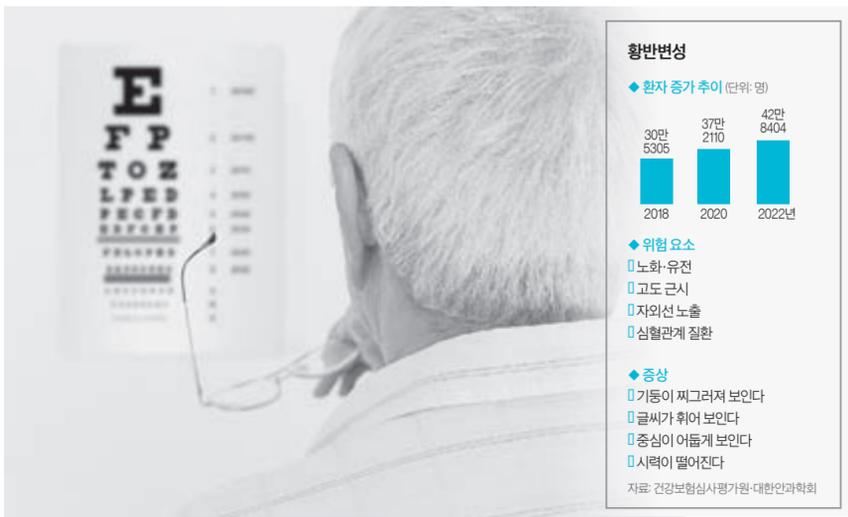
한 눈씩 가리고 봤을 때 손으로 앞을 가린 듯 시야가 답답하면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다. 저시력(교정시력 0.3 이하)과 실명의 주원인인 황반변성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2년 42만8404명을 기록했다. 환자 수가 4년 전(2018년 30만5305명)의 1.4배다. 시각세포의 95%가 밀집한 황반은 폭 0.5mm, 두께 0.3mm의 타원형 신경 조직이다. 시각세포가 빛·색상을 감지할 수 없는 흉터 등으로 대체되면 시력이 뚝 떨어진다. 대개 노화가 주원인이다.

여의도성모병원 노년정 안과병원장은 “노인성(연령 관련) 황반변성 중 안구 주사 치료가 필요한 습성(삼출성) 황반변성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임상에서 환자가 너무 많아 안구 주사 치료가 매년 급격히 증가한다”며 “노화와 관계없는 성인형 황반변성도 증가세로, 근거리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도근시(안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짐)가 황반부 변형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습성 황반변성은 산소·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층(맥락막)에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 황반부에 출혈을 일으키고 삼출물(고름·진물)이 쌓여 실명을 초래한다. 안구 주사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걸 억제해 습성 황반변성 진행을 늦춘다. 건성 황반변성은 노폐물(드루젠)이 쌓이는 것으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으나, 이 중 일부는 습성으로 진행되는다.

저시력이라도 보존엔 일상생활 가능

황반변성은 과거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온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치료 환경이 좋아졌다. 치료제와 고난도 수술이 가능한 장비 도입으로



실명 위기를 극복하는 환자가 많다. 치료의 주목적은 시력 개선보다는 유지·보존에 있다. 손상된 신경은 재생이 안 되므로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며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서다. 질환의 진행을 늦춰 시력을 보존해야 하므로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시력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질환 특성을 오인해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있다. 노 병원장은 “치료 횟수에 비해해 시력 개선을 기대하거나 초기에 좋은 시력 개선 효과를 본 경우, 본인 스스로 치료 효과를 판단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급격한 시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재발 시 빠른 대응을 어렵게 해 시력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안과 질환은 사회생활 제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연령 관련 황반변성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

울증 발병 위험이 15% 높다는 국내 연구결과(삼서서울병원 안과, 2023)가 있다. 반복적으로 안구 내 주사를 맞아야 하는 피로감, 실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다.

실명 위험이 높은 중증 황반변성이어도 적극적으로 치료해 남은 시력을 지키면 삶의 질을 유지한다. 노 병원장은 “완전 실명 가능성이 높은 환자가 수술받은 뒤 안전수치 50cm(손가락 개수를 50cm 거리에서 구별) 정도의 시력을 되찾으면 저시력이라도 실제 사회에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집 안에서 개인 생활을 스스로 하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안전수치는 시력표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 손가락 개수를 구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말한다.

한 눈씩 가려보며 시력 점검해야

좀 더 나은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과 치료가 답이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황반변성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환자의 질환 인지율이 4%에 불과하다. 이에 학회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40대부터 안저검사를 권장한다. 1초 안에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다. 황반의 미세한 변화와 다양한 질환을 찾아내는 빛간섭단층촬영(OCT) 검사도 있다. 노 병원장은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황반부 변화 부위가 넓은 부위로 확대되기 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시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황반 반흔(흉터)이 형성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자가진단은 질환을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황반 시각세포가 손상되면 손으로 눈앞을 가린 것처럼 물체 중심이 겹쳐 보이고(중심 암점), 계단·바둑판 같은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변형시)이 나타난다. 두 눈으로 볼 땐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한 눈씩 가려 보며 시력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사회적 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대한안과학회지, 2019). 황반변성은 실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 손실과 같은 비용을 증가시킨다. 치료·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병원장은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성 황반변성의 실명 원인인 지도상위축 진행을 억제하는 안구 주사제를 승인했다. 국내 도입 시 1~2년 안에 안구 주사가 현재보다 최소·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실명에 직면한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황반변성 의료비 상이도 불가피한 만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민영 기자

안구건조증, 65세 이상 30% 발병... 정기 안과 검진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노년층 안구건조증 관리법

눈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사용해 노화가 빨리 온다.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해지는 경우가 잦아질 때면 단순한 피로로 간주하고 방치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는 눈의 노화를 부추길 수 있다.

눈의 노화는 안구건조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노인성 안 질환으로 나이가 들수록 눈물샘에서 분비하는 눈물의 지방질이 줄어들어 쉽게 건조해진다. 폐경기 전후 여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와 함께 눈물 생성이 주는데, 이것이 안구건조증을 야기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년 인구가 늘어나 전자기기 사용이 잦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증상 악화 요인 중 하나다. 실내 습도가 낮은 환경이나 미세먼지

가 심한 날씨,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 교정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등 복합적인 요인이 건조 증상을 유발한다.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노년층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의학협회 안과학 학술지(Archives of Ophthalmology)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년층의 안구건조증 유병률은 30.3%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 3명 중 1명은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1년 기준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 중 60~69세가 15만3589명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았다. 여성 환자의 경우 50~59세가 32만5281명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자기기 오래 썼다면 먼 곳 응시를

안구건조증은 눈 뜨기 힘든 작열감이나 피로감, 이물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빛에 예민해져 눈을 뜨기 힘들거나 바람이 불면 과도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각막의 안 표면이 손상돼 시력이 저하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각막의 안 표면을 보호하는 눈꺼풀 기능도 떨어져 노년층은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

안구건조증은 완치가 없는 질환이지만 생활습관과 환경 개선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했다면 잠깐이라도 먼 곳을 응시하며 눈에 휴식을 줘야 한다. 이때 허공을 응시하기보다 먼 곳 혹은 건물의 지정된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요령이 필요하다. 온찜질이나 안구 마사지도 도움을 준다. 자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감은 채 5~10분 내외로 온찜질하거나 따뜻한 손으로 감은 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때 눈꺼풀을 위에서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자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진단 받은 뒤 인공눈물 써야

눈 상태에 맞는 치료도 필요하다. 안구건조증 치료는 원인에 따라 인공눈물, 염증 치료제, 눈물 분비 촉진제가 사용된다. 이 중 인공눈물을 점안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인공눈물은 부족한 눈물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안구 건조에 의한 각막 안 표면 손상과 시력 감소를 막아준다.

다양한 성분과 농도로 이뤄진 인공눈물은 환자의 연령과 증상,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므로 안과 의사에게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점안제는 각막에 수분을 보충해 줘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흔히 처방된다. 심평원 표본 코호트 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점안제 처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공눈물 점안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눈 주위에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이중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이물감, 눈 시림, 작열감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안구건조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 노인 눈 건강에 큰 걸림돌이 된다. 안 증상을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할 경우 2차 안 질환이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눈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적절한 치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변허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본트리울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대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알리스프링 북에서 10분, 연방타운에서 10분 거리

센티넬 / 쉐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티넬 북에서 10분, 연방타운에서 10분, 연방타운에서 10분 거리

젊어도, 월경 주기 규칙적이어도 난임일 수 있다

탄생의 동행 ① 가임력 팩트체크 정자·난자 같은 생식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가임력이 떨어진다. 결혼이 늦었다고 임신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난임은 아는 만큼 극복할 수 있다.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를 통해 세상과 만난다. 생물학적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생식세포를 선별해 배아를 키우고 이식을 돕는 난임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35세를 기점으로 생식 능력이 뚝 떨어진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난임 치료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일보 건강한 가족은 생식의학 분야 글로벌 기업인 한국페링제약과 함께 행복한 가족의 탄생을 돕는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탄생의 동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첫 주제는 '가임력 팩트체크'다.

1 Check point **월경 규칙적이어도 난임일 수 있어**
한국은 난임 치료 강국이다. 생물학적 나이가 50세가 넘었는데 난임 치료로 임신·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도 있다. 문제는 결혼이 늦어지면서 난임 치료를 시도하는 연령대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즈메디병원 아이드림센터 이유진 센터장은 "취업, 주택 마련 등을 이유로 결혼을 늦출수록 난자의 질은 떨어지고 정자의 운동성이 나빠져 임신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자연 임신이든, 난임 치료를 받든 마찬가지다. 특히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나

이가 많을수록 반복적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해서도 안 된다. 35세 이하로 젊어도, 월경이 규칙적인 여성도 자궁·나팔관 등의 문제로 난임을 겪을 수 있다.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 난임으로 진단받는 비율은 25~30%에 불과하다.

2 Check point **난자 냉동은 늦어도 38세 이전에 시도해야**

결혼·자녀 계획 등이 불확실하다면 난자 냉동 등으로 가임력을 지키는 방안을 고려한다. 계속 정자를 만들어내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평생 쓸 수 있는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연스럽게 초경을 기점으로 매달 성숙된 난자를 하나씩 배출하면서 난자의 수가 줄어든다. 게다가 난자의 질은 35~38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송과 마리아 플러스 김상돈 부원장은 "비교적 젊거나 난소 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 미리 난자를 보관했다가 난임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난자 냉동을 고려한다면 34~37세 무렵에 시도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성이 좋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난자 냉동을 원하는 30~40대 여성에게 첫 시술비의 50%를 지원한다.

“남녀 모두 35세 후 가임력 떨어져
부부 함께 난임 검사 후 치료해야
난자 냉동은 34~37세엔 시도를

3 Check point **난임 치료 늦을수록 임신에 오래 걸려**

난임은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생식의학 등 난임 치료 기술이 발전해도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임신 성공률은 차이를 보인다.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에서 밝힌 43~50세 여성의 평균 체외수정(IVF) 임신율은 배아당 6%다. 18~34세의 IVF 임신율(배아당 41%)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나이도 덩달아 늦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문제는 스스로 난임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 마리아병원 조유리 진료부장은 "늦어진 결혼만큼 난임 치료를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자연 임신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 늦을수록 임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연 임신 시도부터 난임 치료로 임신에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7년으로, 일본(6.4년)·싱가포르(5.8년) 등 같은 동아시아와 비교해도 길다는 난임 치료 인식 조사도 있다. 35세 이상 여성이라면 결혼 후 1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일찍 난임 전문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난임 치료를 망설일수록 임신에 이르는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4 Check point **부부가 모두 난임 검사 받아야**

나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가임력 저하에 영향을 준다. 난임이 부부 중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난임 전문병원에서 첫 대면 진료 일정을 잡을 때 부부가 함께 방문할 것을 권하는 이유다. 난임의 원인은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의 발

생부터 정자·난자가 결합하는 수정, 수정된 배아의 이동, 모체와 연결하는 착상 등 전 과정에 걸쳐 존재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여성의 상태만 살피고 난임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난임 치료가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고, 남성은 정액 검사 등을 이유로 난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 탓이다. 미즈메디병원 아이드림센터 노은비 원장은 "남성도 나이가 들수록 정자의 질이 떨어지고 염색체 이상 위험이 증가하는 등 가임력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배아의 발달 결함, 임신을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요즘엔 무정자증 등 남성 난임이라도 고환에서 성숙 정자를 채취해 IVF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보조생식술로 임신 시도가 가능하다.

5 Check point **과배란 유도 주사가 폐경 유도하지 않아**
여성은 배란할 때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준비하다가 선택받은 우성 난자 하나만 남기고 퇴화한다. 체외수정 시술이나 난자 냉동 때 필수적으로 과배란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운명인 다수의 난자를 살려내 채취한다. 앞으로 쓰일 난자가 아닌 없어질 난자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조유리 진료부장은 "과배란 유도 주사로 인해 폐경을 앞당기거나, 난소 기능 저하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자궁내막증 등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도 크게 영향을 주지

6 Check point **심리적 안정을 돕는 남편 역할 중요**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난임 치료 역시 부부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동 과제다. 과배란 유도를 위한 주사를 맞고 반응을 확인하는 등 직접적 치료는 여성의 몸에서 이뤄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이다. 김상돈 부원장은 "난임 치료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배려가 절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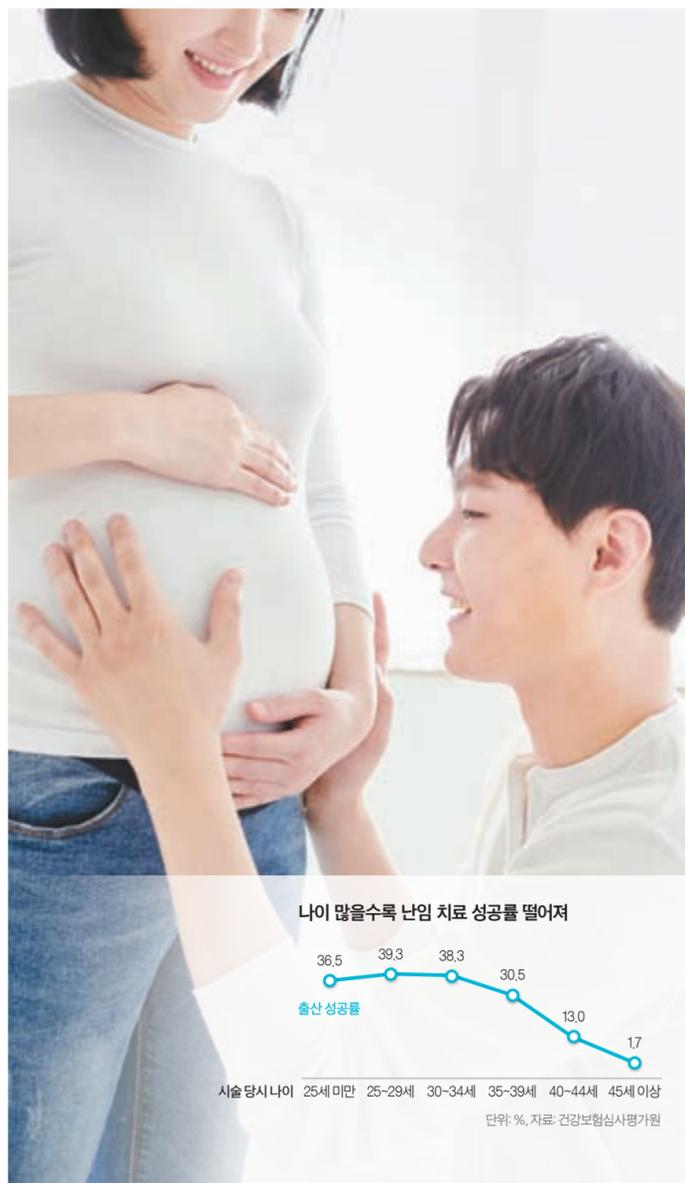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해 여성의 몸에 고농도의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면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예민해지는 등 정서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힘든 난임 치료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감 등 지원이 필요하다.

않는다.

7 Check point **난소 기능 좋다고 임신 미루지 말아야**

난임 치료는 난소 기능을 가늠하는 AMH(항물관호르몬) 수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AMH 검사가 난임 치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개 AMH 수치가 높으면 임신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해다. 난소 기능을 가늠하는 AMH 수치가 높아도 정자의 질이 나쁘면 자연 임신보다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노은비 원장은 "난자가 많이 배란돼도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난자의 질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난소 기능이 좋다고 임신 시도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AMH 수치가 높으면 다낭성 증후군으로 과배란을 유도할 때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한 번의 과배란 유도로 채취하는 난자 수는 8~15개 정도가 적당하다. 최적인 난자 수를 채취할수록 난소과자극증후군 발생 비율이 줄고 배아 이식 후 출산에 이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난임 치료는 난소 기능을 가늠하는 AMH(항물관호르몬) 수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AMH 검사가 난임 치료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대개 AMH 수치가 높으면 임신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해다. 난소 기능을 가늠하는 AMH 수치가 높아도 정자의 질이 나쁘면 자연 임신보다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노은비 원장은 “난자가 많이 배란돼도 생물학적 나이에 따라 난자의 질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난소 기능이 좋다고 임신 시도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AMH 수치가 높으면 다낭성 증후군으로 과배란을 유도할 때 난소과자극증후군(OHSS)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한 번의 과배란 유도로 채취하는 난자 수는 8~15개 정도가 적당하다. 최적인 난자 수를 채취할수록 난소과자극증후군 발생 비율이 줄고 배아 이식 후 출산에 이르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뇌에서 보내는 알츠하이머병 위험 신호 ‘경도인지장애’... 빨리 치료할수록 유리

인터뷰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고령층에게 알츠하이머 치매는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이다. 뇌의 퇴행성 변화로 스스로 판단·행동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진다.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담도 크다. 늙을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줄고 뇌의 신경세포가 소멸해 이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감소한다.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강남구 치매안심센터장) 교수에게 노년기 정신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관리법에 대해 들었다.

권선미 기자

-인구 고령화로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걱정스러운 정도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30년 142만 명, 2050년 31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치매는 조기에 진단·치료하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만큼 요양기관 입소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 진행을 막는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라도 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왜 치료가 필요한가.

“경도인지장애는 뇌에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다.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뇌 인지 기능 감퇴 속도가 병적으로 빨라 치매에 불리한 상태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빠질 가능성이 일반 고령층과 비교해 약 10배 높다. 그런데 경도인지장애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의뢰계에서 치매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빨리 대처할수록 뇌 인지 기능 유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경도인지장애로 의심해야 하나.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기억력 저하는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다만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경도인지장애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증상만으로는 노화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를 구분하기 까다롭다. 진료 현장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어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는 “동년배와 비교해 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대처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운 이다. 지속·반복적으로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시공간 구성 능력 등 뇌 인지 기능 상태를 살펴보는 신경심리검사를 받기를 권한다. 특히 신경심리검사에서는 뇌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뇌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

사에서 뇌 위축이 확인되면,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전환 위험성을 높이는 아밀로이드베타가 뇌에 얼마나 쌓였는지 측정하는 뇌 영상 검사인 아밀로이드 PET(양성자방출단층촬영)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약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ApoE4(아포이4) 유전자가 있을 때다. 영화 ‘마블 시리즈’의 수퍼히어로 캐릭터인 토르를 연기한 크리스 험스워스가 유전자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 유전자인 ApoE4 유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뇌 신경세포 보호의 정도가 약한 ApoE4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뇌 속 아밀로이드베타 단백질 등이 더 잘 쌓여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 경도인지장애 등을 검사할 때 보조적으로 ApoE4 유전자가 있는지 살피는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ApoE4 유전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로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ApoE4 유전자 하위 변이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더 취약하다. 뇌 손상 범위가 넓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빠르다. 알츠하이머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을 선별·진단·치료하는 국가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이 가능한가.

“기억력·판단력 등을 관장하는 뇌는 평소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 치매 발생 위험이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에 따른 치매 발생률을 분석했더니 규칙적인 운동, 금연, 지중해식 식단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32%나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 뇌 인지 기능이 떨어져 독립적 일상이 어려운 증상으로 진행하면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질 뿐이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올해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등 이상 단백질의 뇌 내 축적을 막는 신약이 승인되면서 향후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1번 ‘요로감염’에서 이어집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보통 항생제를 활용한다. 이때 자녀의 증상이 조금만 나아져도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부모들이 있다. 김 교수는 “보통 38도 이상의 발열성 요로감염일 때는 7~14일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임의로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의사의 치료 지침대로 정확한 항생제 복용 방법과 기간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 기저귀를 뗀 만 3~4세 이상의 소아

중 열이 나지 않는 방광염 환자는 통상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면 2~3일 안에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했다.

항생제 치료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요로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한다. 이 교수는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하거나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못해 소변을 참는 아이, 스트레스가 많아 조금씩 소변 실수를 하는 아이 등은

원인을 교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요로감염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 충분히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

또 여자아이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아보다 요도의 길이가 짧아 대변의 세균들이 요도, 방광으로 들어가기 쉽다.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소변을 자주 보게 함으로써 방광을 자주 씻어내도록 한다. 오랜 시간 이동할 때는 아이에게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도록 지도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아이

가 원하면 바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대변을 보고 나서의 앞에서 뒤쪽으로 휴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한다.

보통 1세 미만의 남아에게는 비포경 상태가 요로감염의 위험 요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포경을 하고 자연스럽게 위생 관리도 잘 이뤄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포경 상태가 계속되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에 걸린다면 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또 하나. 습관적으로 신체 아래쪽에 손을 갖다 대는 아이들이라면 손을 깨끗하게 잘 씻겨줘야 한다. 지저분한 손으로 아랫도리를 만지면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요로기계의 구조적 이상이나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요로감염에 걸린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요로에 기형이 있거나 방광요관역류를 동반한다. 방광요관역류를 겪는다면 개선을 위해 약물 혹은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다.

하지수기자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3.9%	42.9%	2.3%	0.0%
매우물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북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sciatica
좌골신경통

옆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뻐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지 못함

방아쇠
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원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쉬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꿈과 희망은 이루어진다

송아지 고기 (29)



원승식
박사·버섯전문가

기라니 아는 것이 잘못됐구나 생각했다. 송아지 고기는 부드럽고 흰 살결이며 핑크빛이 나고 근육질이 전혀 없는

송아지 고기 하면 무조건 비싸고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청첩장을 받은 적이 있다. 예식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피로연도 같이 할 예정이니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꽤나 유명한 레스토랑 고급 호텔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참석해 예식이 끝나고 호텔 종업원들이 가져다주는 요리를 대하는 순간 착잡한 기분이 감돌았다.

종업원에게 이게 무슨 요리냐고 물어보니 거침없이 송아지 고기란다. 예쁜 접시에 야채와 곁들여 모양도 예쁘고 종업원도 상냥하고 휘황찬란한 크리스탈 등으로 분위기는 참 좋았다. 그러나 접시위에 놓인 스테이크를 본

나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주위를 살펴보니 송아지 고기를 알고 먹는 것인지 배고프니까 그냥 먹는 것인지 묵묵히 열심히 먹을 뿐이다. 먹는 동안 마는 듯 하고 나오는데 초대된 친구가 와서 공치사 비슷하게 자랑을 한다. 얼마짜리 저녁이나고 물으니 1인당 1500달러란다. 기가 막힐 뻔했다.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고개만 까딱거리고 돌아온 적이 있다.

두꺼운 쇠고기를 송아지고기 스테이크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송아지 고

것이 최상급이다. 그러한 송아지 고기를 얻고자한다면 암마소가 송아지를 낳자마자 즉시 둘을 분리시켜야 한다.

암마소의 젖을 먹고 함께 있으면 모성애가 있어 송아지를 암마소에게서 갈라놓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분리시킨 송아지는 송아지 고기를 위해 사육하는 곳으로 옮겨진다. 가끔씩 시골길을 여행하다 보면 목장에 개장만한 작은 박스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이 박스는 송아지가 들어가서 뒤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작다. 이곳에 갇힌 송아지는 대략 4개월 정도 피맛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송아지는 태어날 당시 건강에 필요한 철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서 송아지가 암마젖을 빨지 못하고 푸른 풀을 뜯지 못하게 하여 철분 공급을 막는다. 그러면 왜 철분 공급을 막는가. 송아지도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철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철분을 갈망하게 된다. 그럼 왜 철분의 공급을 차단하는가. 철분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으면 송아지 고기색이 빨간색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이다.

▷문의 : 703-915-6114

건강 칼럼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40대 직장인 서모씨는 극도의 피로, 소진된 기분, 의욕상실, 무기력 등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직원 다수가 재택근무를 했지만, 매니저였던 그는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면서 재택근무와 감원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인한 업무, 특히 온갖 잡무를 떠맡았다. 남들은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다시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는데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관찮아지겠지 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요즘은 우울감마저 든다. 번아웃(Burnout)은 말 그대로 '태워 없 어지다', '소진되다'는 뜻으로 최근엔 심신이 지친 상태, 극도의 피로, 피곤한 상태를 말할 때 쓰인다. 열정적, 의욕적으로 업무에 몰두했다가 또는 과도한 업무에 에너지를 소비, 소진해 체력적 한계에 달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한국어로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정신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증상에는 ▶잘 자고 일어나도 그날 해야 할 일로 급속하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다음날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좋아하던 일도 더는 즐겁게 느껴지지 않고 ▶의욕, 흥미, 성취감이 저하되고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어디론가 떠나거나 숨고 싶고 ▶머리가 자주 아프고 짜증이 찾아오는 것 등이다.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한다. 휴식을 취한다고 잠만 자고 폭식, 폭음하고 불규칙, 흐트러진 생활을 한다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상웅
심리상담가(LCSW)
이웃케어클리닉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도 요구된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폭식, 폭음하거나 과도하게 흡연을 했다면 자제하면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 여행은 지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에너지를 충전하고 리프레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꼭 장기 여행이나 해외여행일 필요는 없다. 당일 나들이도 좋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기분 전환에 좋다. 가족이나 편한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럴 때는 가르치려 들지 않고, 내 편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신이 지치게 된 원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원인을 돌아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지금 하는 업무의 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하는 방법이 맞는지 짚어보고 ▶업무처리 방식, 순서, 습관, 시간 등에 문제는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찾아보고, ▶업무 재조정, 성과에 대한 기대치 조절,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재검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개인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번아웃 증상을 겪고 있고 이런 증상이 오래 간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 시간이 지나면 관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우울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 칼럼

노년층 비만의 위험성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신체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든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열량 필요량이 30% 정도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쉽게 살이 찌게 된다. 비만은 단순히 키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장기 사이에 축적된 내장 지방은 당뇨, 성기능장애,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일으키는데, 이는 내장을 둘러싼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몸의 이로운 활성 물질 대신,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지방은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해 체내 염증 지표도 높인다. 체지방량이 올라감에 따라 지방이 혈액에 녹아 막막 중심부인 황반에 쌓이게 되면 실명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75%까지 증가한다.

무엇보다 노년층의 비만은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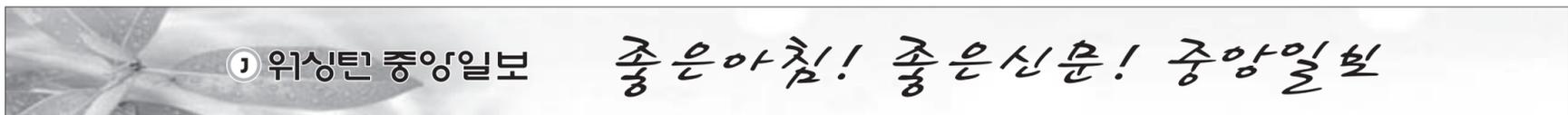
노년층 비만의 한의학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증이다. 냉증은 비장의 소화기능, 신장의 배설 기능과 심장의 순환기능 등 인체의 각종 기능 저하를 일으킨다. 소화기의 냉증은 장의 연동 작용을 떨어뜨려,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신장이 차면 수분 대사 장애로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노폐물 배출되지 않아 몸이 붓는다. 둘째, 습담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소화, 흡수되지 못한 노폐물인 '습담'이 지방으로 전환된다. 셋째, 기허, 기력저하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헤기진 것을 참지 못



박인정 원장
심리상담가(LCSW)
LA 해성한방병원

하고, 과식, 폭식과 피로감을 유발하고, 운동 부족으로 점점 더 비만이 된다.

노년층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소개한다. ①적당한 단백질 섭취: 체중저하나 근 감소가 심한 노인인 경우 체중 1kg에 1~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항노화 효과가 있는 호두, 잣 등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견과류도 식간에 간식으로 좋다. ②햇볕 쬐기: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는 체내 합성을 위해 하루 최소 20분 이상 햇볕을 쬐도록 한다. ③근력 운동: 유산소와 근력 운동은 7대 3 비율이 좋다. 만약 유산소 운동을 30분 한다면 근력 운동은 10~13분 이상같이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높을수록 체중이 감소하고, 체중 감소는 골밀도 감소로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④빠르게 걷기 운동: 뛰지는 않되 가능한 한 빨리 걷기가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높다. 양손에 스틱을 쥐고 땅을 밀어내듯이 걷는 방법은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서 안전할 뿐 아니라 신체와 전신 근육의 90%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좋다. ⑤하루 4~5잔의 물 섭취: 노년기 신장 기능 저하는 만성탈수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만성 질환의 약제들은 이뇨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탈수 상태가 더 증가한다. 만성 물 부족은 근육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남편 백건우가 회상한 윤정희 “딸 바이올린 연주 속 눈감아”



젊음부터 노년까지, 삶을 연기한 배우 윤정희(1944~2023). 2018년 11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던 모습이다.

권재석 사진전문기자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아네스의 노래 -영화 '시')

레드카펫의 환호가 가시고 침묵이 흘렀다. 영화 '시'(2010)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 양미자가 희생된 소녀를 위해 쓴 진혼시다. 지난 4일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의 시작은 고(故) 윤정희였다. '시'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우 윤정희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주인공처럼, 고인도 같은 병과 싸웠다.

바이올린 독주 속에 데뷔작 '청춘극장'(1967) 등 고인이 출연한 영화들이 소개됐다. 프랑스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딸 백진희(47)씨의 연주였다. 마지막을 함께 한 곡,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다. 병에 걸려 자신을 잊으면서도 “활영가야 한다”던 배우 윤정희였고,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턱밑에 바이올린 자국 있으면 딸인 줄 아세요”했던 진희씨다. 이날 진희씨는 윤정희를 대신해 한국영화공로상을 받았다.

다음날 중앙일보와 만난 백건우(77)는 “병석의 엄마를 위로하기 위해 진희는 간병 중에 자주 바이올린을 쳤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보칼리제'를 포함해 두 시간 반 넘게 많은 곡을 연주했다. 시상식에서도 가사 없는 노래인 '보칼리제'로 말없는 가운데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원래 피아노 반주가 있는 곡이지만 진희 혼자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영화인 윤정희와 많은 영화제를 함께 한 백건우지만 이번 부산영화제에서는 처음인 게 많았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스무 살 진희씨와 셋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아내 없이 왔다. 레드카펫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올랐고, 아내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대담에 나왔다. 5일 부산 해운대구 CGV센텀시티에서 '시' 특별상영 후 마련된 이창동(69) 감독과의 대담이다. 이날 상영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200여 명의 관객은 두

사람의 대담에 귀를 기울였다.

백건우는 “(윤정희의) 영화 인생을 이 작품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며 “‘시’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했다. 그는 주로 이창동 감독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감독과 관객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병에 관해서는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했다. 백건우는 “당시 이창동 감독의 제안을 시나리오도 안 보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돌아봤다.

이 작품으로 윤정희는 칸영화제에 처음 초청돼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올랐고, 영화제는 이 감독에게 각본상을 안겼다. 이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은 윤정희씨”라고 말했다. 백건우도 “영화 속 '미자'와 손미자(윤정희의 본명)는 완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생활고 속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미자'는 한 여중생의 자살에 외손자가 연루돼 있음을 알게 된다. 지속적인 집단 성폭행으로 동급생을 죽임에 이르게 했음에도 가해자 부모들은 합의금을 건여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 조금도 누우치지 않는 손자의 모습에 미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속에 나선다.

이 감독은 “영화 촬영 중 병이 시작된 것 같다. 젊은 배우들도 힘들어 하는 2분30초 가량의 롱테이크를 한 번 만에 촬영할 정도로 촬영 초기 역력이 아주 좋았는데 점점 대사를 기억하는 것을 힘들어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대사를 못 외울 정도로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텐데, 그게 윤정희라는 배우가 가진 에너지”라고 말했다.

객석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지켜보던 진희씨가 끝내 눈물을 쏟았다. 부녀는 지난 2019년 “알츠하이머 증상이 10년쯤 전에 시작됐다”고 투병 사실을 공개했다. 윤정희는 데뷔 50주년을 맞은 2016년 “아마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영화) 할 거예요. 영화는 인간을 그리는 건데, 인간이 젊음만 있나요”라고 했다. 되짚어 보면 병이 많이 진행됐을 시점이다.

백건우는 “(투병)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 왔다”며 “(배우가) 천직인 것 같다. 영화를 접할 때 태도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다. 그 점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영화와 음악, 서로의 영역에서 상대를 빛내 주던 두 사람이었다. 백건우는 남은 삶에서 “하루하루 새로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다. 그게 예술가의 길”이라고 했다. '미자'처럼.

권영기

학부모·교사·아이 시선으로 본 교실 안 진짜 괴물은...

고레에다 '괴물' 부산영화제 공개 뜬소문이 부추긴 오해와 분노 추적 “교사와 학생 인권, 진지하게 고민”

초등학생 아이의 말수가 부쩍 줄었다. 학교에 신고 간 신발은 한쪽만 사라졌다. 아이는 자학하는 듯한 이상한 말도 한다.

부모로서 걱정될 만한 정황이다. 누가 네게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묻자, 아이는 뜻밖에도 담임 교사의 이름을 댄다. “호리(나가야마 에이타) 선생님이 그랬



고레에다 감독

어요.”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61)의 신작 '괴물'은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든 교실 문제를 전면에 다룬 작품이다. 5학년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의 걱정스러운 변화에 학교로 달려간 신글맘 사오리(안도 사쿠라)는 학교 측의 진심 없는 사죄, 매뉴얼만 따지는 태도에 화가 난다. 하지만 교사들도 사정이 있다.

이 영화는 '브로커'로 지난해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을 받은 그가 일본에 돌아가 찍은 작품이다. 한국에선 지난 7일 제28회 부산국제영화

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첫 공개됐다.

한국에서 리메이크됐던 아동 학대 소재 드라마 '마더'(2010)로 화제를 모은 극작가 사카모토 유지가 다시 펜을 들었다. 평소 직접 각본을 써온 고레에다 감독이 유지의 시나리오 연출 제안을 받아들여면서 영화화가 성사됐다. 울초 작고한 일본 유명 음악감독 사카모토 류이치의 유고작이기도 하다.

7일 부산 해운대구 KNN시어터에서 열린 '괴물' 기자회견에서 고레에다 감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 중 정말 존경하는 두 분과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면서 투병 중이던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해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편지를 보내면 사카모토로부터 음악이 오는 작업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같은 시간대의 상황을 학부모·교사·아이, 각각의 시선에서 차례로 바라본 3부로 구성됐다. 뜬소문이 부추긴 오해와 분노를 한꺼풀씩 벗겨내며 아픈 진실에 다가간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부르는 “누가 진짜 괴물인가”에 대한 답을 영화 말미 관객 각자가 떠올리게 된다.

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각본상을 받았다. 남동철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직무 대행은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 한 소도시의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각각의 엇갈리는 시선을 3부 구성에 담았다.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학생 인권, 교권 보호 등의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면 봐야 할 영화”라고 소개했다.

'괴물'은 올해 말 한국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다. 나원정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파리는 후배들 몫... 노장들의 아름다운 퇴장

최인정·허준·정진화·김국영·김민규
김단비·이남용·류한수·김현우 등
항저우 AG 끝으로 태극마크 반납



누군가는 금메달로, 누군가는 노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 그들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8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지막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베테랑들의 활약을 돌아본다.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를 이끈 건 펜싱이었다. 특히 여자 에페 최인정(33·계통시청)은 개인전에서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후배 송세라를 결승에서 이긴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던 그는 마지막 무대를 누구보다 화려하게 장식했다.

최인정은 "선수 생활을 2관왕으로 마무리하게 돼 행복하다. 특히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 더 뿌듯하다"고 기뻐했다. 내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 도전을 포기한 그는 "내가 떠나도 대표팀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못다 이룬 올림픽 금메달을 후배들이 내년 파리에서 따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남자 플뢰레 대표팀 만형 허준(35·광주시청)은 단체전 결승전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쳐 2연패에 기여했다. 1m68cm의 단신인데도 꾸준히 정상급 기량을 유지해왔던 그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기로 했다. 허준은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다. 앞으로 후배 선수들이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근대5종 정진화(34·LH)도 국가대표 은퇴전을 치렀다. 2017년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그는 도쿄올림픽에선 4위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선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정진화는 "마지막을 금메달로

장식해 기분 좋다"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육상 대표팀의 베테랑 김국영(32·광주광역시청)은 마지막이 된 자신의 4

번째 아시안게임에서 첫 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이정태(27·안양시청)·이재성(22·한국체대)·고승환(26·광주광역시청)과 함께 나선 남자 400m 계주에서 38초74의 한국 타이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따냈다. 김국영은 인터뷰

8일 끝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물러난 선수들. 1 펜싱 여자 에페 2관왕 최인정 2 여자 농구 김단비 3 남자 하키 이남용 4 근대5종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딴 정진화(왼쪽) 5 남자 레슬링 류한수 6 펜싱 플뢰레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허준 7 남자 계주 400m 동메달을 따낸 김국영(왼쪽 셋째). 장진영·김종호 기자, [연합뉴스·뉴스]

도중 눈물을 보였다. 국가대표로 더 뛸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종합 대회이기에 북받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무술 쿠라시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따낸 김민규(41)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유도 선수로 은퇴한 뒤 체육관을 운영하며 비수한 종목인 쿠라시로 전향한 그는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 복싱 남자 92kg급 동메달리스트 정재민(35·남원시청)도 은퇴를 결정했다.

여자 농구 대표팀 에이스 김단비(33·우리은행)와 국가대표로 300경기 이상 출전한 남자 하키 대표팀 주장 이남용(40·성남시청)도 고별전을 치렀다. 김단비와 이남용은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한국 레슬링의 '쌍두마차' 류한수(35)와 김현우(35·이상 삼성생명)는 아쉽게 매트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뒤 나란히 결혼하려 했던 둘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마음고생을 했다. 두 선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지만, 류한수는 8강에서, 김현우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졌다. 김효경 기자

클린스만 "아시안컵 결승서 일본과 맞붙고 싶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내년 1월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과 맞대결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9일 경기도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10월 A매치 소집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본은 강한 팀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다. 실력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경쟁 관계

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아시안컵에서 일본과 만나고 싶다. 가급적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9위다. 아시아에서 순위가 가장 높다. 한국(26위)보다 7계단 위다. 일본 축구는 최근 상승세가 완연하다. 지난달 A매치 평가전에서 독일(4-1승)과 튀르키예(4-2승)를 연파하며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21년 이후 두 차례 한-일전에서 한국

은 잇달아 0-3으로 완패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패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주 맞부딪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더라도 라이벌과 계속 붙어보는 게 우리의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이라면서 "아시안컵이 끝난 뒤에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일본과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4일 개막하는 아시안컵까지는 95일이 남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대표팀의 뼈대를 세워놓고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6월 이전까지는 실함에 비중을 뒀다면 이젠 대표팀의 지속성과 연속

성에 무게를 뒀다 할 시점이다. 일단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츠르페나츠 베즈다), 이재성(마인츠) 등 대표팀의 뼈대를 이룰 선수 8~10명을 확보했다. 이 선수들이 건강하게 아시안컵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논란이 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변화를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클린스만은 "내 스타일과 전임자들이 해온 방식이 다르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우리 팀 선수와 상대 팀 선수가 더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교류하고 정보를 얻는 게 대표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지훈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Starting **19.⁹⁹**
Lunch Dine-in Only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⁹⁹ → 6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⁹⁹ → 59.⁹⁹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스승**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넒직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매년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한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서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매년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유경험 대우 베네핏 제공 \$4만 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매년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셔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fastfixusa@gmail.com
571-633-0766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산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허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투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매년데일 회계사무실 택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매년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사상장만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드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gmail.com

병원에서 일 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Fulltime)
Receptionist (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PM-8:30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오후(10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9AM to 5PM
resume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셔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셔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딜리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 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첼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time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 830- 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셔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 호스트/호스텔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매년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 703-712-7089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엘리콧시티
443-310-9247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안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하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델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력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르옴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력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헌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인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트타임 캐셔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 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트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쿨드 샌드위치 유경력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조절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나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샘스바버(롤톤)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력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 처치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력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둘루스에서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케비넷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 토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력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넷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 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디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당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창고서 함께 박스 배달할분을 구함.
신분상관없음.
571-242-3736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
com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력자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시어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력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씩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분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맥스(스탈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학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3.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매트르옴 바로 앞. 즉시 입주!
▶ 703-477-3114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 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예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 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든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 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 3, 화 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Fairfax, 방 3+다락방, 화장실 2
Oakton HS, \$2500
703-585-4183

센터빌 타운홈 \$2,950
방 3, 화 2.5 소핑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

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 4, 화장실 3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571-245-1495

센터빌 3층, 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 3, 화 3.5, 차고 1개, 덱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 집
703-489-6926

〈콘도 렌트〉

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 2, 화 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 리모델 부엌 & 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 m
방 2, 화장실 1, Metro 역 걸여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

콘도(Annandale) \$2,100/m
방 2, 화 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입구 콘도.
방 1, 화 1. 파킹 2. 12월 초 입주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

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 콘도 차고 1, 방 3, 화 2/1, 2215sq

703-489-6926
애난데일 방 2, 화 1, 렌트 \$1600, 전기요금 별도
703-403-8918

Falls Church Condo 렌트
방 2, Metro/66 도로 모두 갖추어진 깨끗한
집, 렌트 (\$1550+ condo fee)
703-336-3283

콘도 (단기렌트) 방 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

〈방렌트〉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1
주차 넉넉
703-965-2343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홈 방 1
유모 가구완비 인터넷
301-655-3248

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 1, 화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버크 싱글홈 반지하 전체 별도 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 유모,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환영
571-216-4775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방세 놓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

애난데일 예천 앞 방세 놓습니다.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 1, 화 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힐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모함,
교통편리함 (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 1, 욕실 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 1, 화 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 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 Hmart 도 가까이. 반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

지하전체 간단취사가능. 주차, 인터넷, 유모.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 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매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 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

싱글 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 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 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
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층 방 1개 화장실
주차 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브라더로드 조용한 집
싱글홈 방 1 렌트 욕실 인터넷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 새 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모,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환영.
703-405-9005

방 1개 렌트, 욕문/비엔나 지역 인터넷, 1파
킹, 세탁기 & 건조기, 부엌사용가능, 비엔나 메
트로 5분, 교통 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

지하 방 2 넓은 공간에 세탁기 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

아난데일 서술순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 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

Fairfax Brigade Ln 큰방 1, 큰 옷장,
별도 큰 욕실, 책상 침대, 침구, 세탁,
유틸리티 포함. 여자분 환영 \$850/m
703-919-2661

MD 저런타운 싱글홈 욕실 딸린 큰방 1 하고
반지하 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조용한 아파트, 버
스 교통 편리, 널널한 주차장, 가게/식물점도
보거리, 깨끗이 리모델링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 (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여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 건물)
▶703-477-3114

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 편리
▶703-477-3114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
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까이. \$229,000
▶703-477-3114

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 편리. Lotte
Mart 가까이. \$299,000
▶703-477-3114

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 116 sf 우리 미국어
행 근처 차 3대 파킹할 수 있음.
▶703-813-8949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층 2,252 sf 2 Level Bump-
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

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 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

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풀사이즈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

Centreville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만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미들 학군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
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만 볼 보유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 안 한층식 8만볼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 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

마켓넷 상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킬) 240-381-1615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웰터 C에서
모여서 멀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말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박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t (or this) took me by surprise; 깜짝 놀라다

(A doctor is talking to Mark about his injured leg...)
(의사가 마크의 다친 다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Doctor: Well this took me by surprise.
의사: 그게 내가 아주 놀랐어.
Mark: What's that doctor?
마크: 왜요 선생님?
Doctor: Your x-rays show that your leg is healing faster than I thought it would.
의사: 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다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아물고 있어.
Mark: Do you mean I can play football again?
마크: 다시 풋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Doctor: Not so fast Mark. You have to take things slow.
의사: 덤비지 마 마크. 차근차근 해야지.
Mark: You're right. It's just that I want to get back on the football field.
마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전 그냥 다시 풋볼 경기장에 가고 싶어요.
Doctor: If you injure your leg again before it completely heals you can make things worse.
의사: 다리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다시 부상을 입

으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
기억할만한 표현
▶ not so fast: 덤비지 마. 잠깐, 기다려.
Son: "I'm going to Billy's house to play computer games."
(아들: 컴퓨터 게임 하러 빌리네 집에 갈 거예요.)
Dad: "Not so fast. Clean your room first, then you can go."
(아빠: 잠깐, 기다려. 네 방 먼저 청소하고 가지.)

▶ take things slow: 천천히 해.
"You just got divorced. Don't think about dating right now. Take things slow."
(너 막 이혼했잖아. 지금 데이트 할 생각하지 마. 천천히 해.)
▶ get back: 돌아오다.
"What time did you get back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몇 시에 돌아왔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열쇠

(1) 온갖 곡식과 과실. 가을은 ~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4) 인자하고 여진 어머니이자 착하고 좋은 아내. 신사임당은 ~의 전형이다 (7) 색칠로 그림, 글자, 무늬 따위를 수놓는 일 (8)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 (9)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 편달 (11) 참외, 수박 따위를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지은 막 (12) 항공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비행장 (13)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 (15)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 (16) 물에 사는 동물의 호흡 기관 (18) 시골 글방의 스승. 그는 일개 ~에 불과하나 학식이 매우 높다 (21)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한 연극 (22) 숲속을 거닐면서 숲의 기운을 쐬는 일 (24) 임금의 명령을 받아 전하여 주는 사신 (25)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가 깊고 뚜렷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학위 (26) 손도장 (28) 뼈대를 바꾸고 태를 바꾸어 씌.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뀌 (29)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남

세로 열쇠

(1)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2) 순백색의 바탕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 자기 (3)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을 생산하는 곳 (4) 선전문, 구호문 따위를 적어 걸어 놓은 막 (5) 내일의 다음 날 (6) 새로 만든 배나 새로 된 항해사가 처음으로 바다로 나아감. □녀□□ (10) 무예를 익히는 곳 (12)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 (14)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명절 등에 주로 먹는 전. □구□ (15)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 (16)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 (17)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오페라 (19) 학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 (20)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22)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 (23) 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 (25)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음 (27) 물건을 사고파는 일

스도쿠

9	3		8	6				4
5	6	1		7		2		
		4				5	9	
6				1			4	7
4								3
			4					
		6		4		1		5
8				6		3	7	
2	1				8	4	9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9	6	4	8	3	2	5	1	7
2	2	3	1	9	5	6	4	8
5	8	1	6	4	2	9	7	3
6	2	9	2	5	4	8	3	1
3	1	8	2	6	9	2	5	4
7	4	5	3	1	8	2	6	9
1	9	6	5	2	3	4	8	7
8	3	2	4	7	6	1	9	5
4	5	7	8	6	1	3	2	9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잘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